연구총서 제1권(통권 4권)
세종지역학센터

세종을 짓는 지역학
: 세종지역학센터 중장기 로드맵

고순영·최명진·이재민·이혜원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연구총서 제1권(통권 4권)
세종지역학센터

세종을 짓는 지역학
: 세종지역학센터 중장기 로드맵

고순영·최명진·이재민·이혜원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목 차

세종을 짓는 지역학, 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4

Ⅰ. 센터의 탄생과 역할 7

1. 세종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 9
2. 세종지역학센터의 출범과 활동 정리 15

Ⅱ. 센터의 세 가지 엔진 19

1. 세종지역학센터의 코어, 세종지역학 LAB 22
2. 센터와 시민을 잇는, 세종지역학 Contents 64
3.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Platform 71

Ⅲ. 센터 미래의 설계, 중장기 계획 79

1. 센터 미래 설계의 원칙 81
2. 센터의 미래, 비전과 목표 83
3. 세종지역학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122
4. 세종지역학센터 사업 추진 로드맵 126

주석 및 참고문헌 128

(프롤로그)
세종을 짓는 지역학, 센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도시는 지어진다. 도로와 건물이 놓이고, 사람이 모이고, 제도가 자리를 잡는다. 그러나 도시를 도시답게 만드는 일은 그 안의 사람들이 스스로를 설명하는 언어를 갖추는 데 있다. 세종특별자치시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적 기획 속에서 출범한 이 도시는, 시간이 흐를수록 스스로를 설명할 언어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바로 그 언어를 만들고 축적하는 과정 속에서 조직되었다.

이 책은 우리 센터의 네 번째 총서이다. 1권은 세종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인물을 통해, 2권은 기차역을 중심으로 한 삶의 현장을 통해, 3권은 도시브랜딩의 자원인 한글을 통해 세종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톺아보았다. 다루는 대상은 달랐지만, 결국 질문은 하나였다. 세종은 어떤 도시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구성해 갈 것인가.

이번 4권은 그 축적 위에서, 지금까지의 연구와 실천을 중장기 운영과 발전계획의 언어로 다시 정리하고자 한다. 새로운 사실을 덧붙이기보다, 이미 해온 일을 자산으로 묶고 다음 단계의 질서를 세우는 데 더 큰 뜻을 두었다.

우리는 먼저 센터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며 출범의 배경과 활동의 흐름, 성과와 한계를 함께 점검하고자 했다. 나아가 연구(LAB), 콘텐츠(Contents), 플랫폼(Platform)이라는 세 가지 엔진을 중심으로 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정리하였다. 아울러 앞으

로의 로드맵을 통해 세종이라는 도시와 함께 호흡하며 성장하기 위한 방향을 가늠하고자 했다.

이 책은 당장의 성과를 나열한 결과보고서가 아니라, 세종지역학센터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하나의 설계도에 가깝다. 물론 현실은 녹록지 않다. 인력은 충분하지 않고, 예산은 늘 제약 속에 있으며, 조직 역시 여전히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다. 그럼에도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분명하다. 설계가 있어야 부족한 지점이 보이고, 방향이 있어야 축적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세종지역학은 완성을 선언하는 프로젝트가 아니다. 세종이라는 도시가 계속 변하는 한, 그 도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작업도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 총서는 그 과정의 한 장이며, 다음 장을 열기 위한 지도다. 세종을 짓는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

세종지역학센터장 **이 재 민**

I

센터의 탄생과 역할

1. 세종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
2. 세종지역학센터의 출범과 활동 정리



센터의 탄생과 역할

1. 세종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

1) 왜 지금, 세종지역학인가

지역학을 말할 때 가장 자주 생기는 오해는, 그것이 '지역의 옛이야기'를 모아두는 작업에 머문다는 인식이다. 그러나 지역학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한 지역을 공간적 배경으로 삼아 삶, 제도, 문화, 산업, 환경 같은 복합적인 대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려는 학제 간 접근이다. 즉, 지역을 더 정확히 읽고 더 단단히 설명하기 위한 '지적 도구'인 셈이다.[1)]

이 같은 관점에서 보면, 세종은 지역학이 특히 절실한 도시다. 세종은 2012년 출범하여 국가 단위의 큰 지원 아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라는 국가적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국가적 입장에서 세종시는 수도권 과밀화를 극복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견인해야 하는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도시 자체의 완전한 건설과 정착을 위한 고민과 논의를 함께 진행해야 했다. 즉 세종시는 '어떤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민과 어려움은 늘 존재해 왔다. 그래서 세종에서의 지역학은 다른 도시와 달리 도시의 정체성을 정리하는 일에 그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정체성이 앞으로 어떻게 확장되고 공유될지까지 내다보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세종학 추진의 일차적 목적을 '세종시 정체성의 기반 마련'으로, 최종 목적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 구축'으로 설정한 흐름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잘 보여준다.[2)]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초국가, 초연결의 환경 속에서 지역이 가진 문화적 특수성과 의미가 오히려 더 중요해졌고, 인구감소와 지역쇠퇴가 현실로 다가오는 지금, 지역정체성을 구현하는 전략으로서 지역학의 실천이 강조되고 있다. 세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세종은 출범 이후 조례 제정, 위원회 구성, 교육 활동 등 나름의 방식으로 지역학을 실천해 왔고, 그 흐름을 더 체계적으로 다듬을 시점에 와 있다.[3)]

이때 중요한 것은 '전담 조직'과 '지속 가능한 수행 방식'이다. 세종학을 전담할 조직이 필요하며, 연구 활동과 시민 소통 프로그램이 함께 가야 한다는 제안, 그리고 총서 발간, 포럼, 연합대학 같은 프로그램 구상은 결국 '지역학을 연구로만 두지 말고, 도시의 일상 속에 놓아두라'는 바람이 묻어나 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바로 그 바람을 수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플랫폼이다. 우리 센터는 세종의 인물, 지리, 역사,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세종 지역학'의 이름과 관점으로 연구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프로그램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총서의 1권, 2권, 3권이 각각 '인물', '삶의 현장', '한글과 미래'라는 주제로 세종을 다른 각도에서 비춰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다양한 창을 통해 세종을 바라보되, 결국에는 한 도시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더 선명하게 만들기 위한 축적이었다. 그리고 4권은 그 축적을 '운영의 언어'로 다시 번역하는 권이다. 이번 총서에서 다루려는 것은 단순한 사업 나열이 아니라, 세종지역학센터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비전),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지(전략), 어떤 방식으로 굴러가야 하는지(운영), 그리고 이를 언제까지 무엇으로 완성할지(로드맵)를 하나의 설계도로 정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이번 권은 '새로운 사실을 발굴하는 책'이라기보다 '이미 해온 일을 자산으로 정리하고 다음 단계의 질서를 세우는 책'이다.

정리하면, 세종지역학은 세종이라는 도시가 스스로를 설명하고, 시민이 그 설명에 참여하며,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언어를 만드는 과정이다. 이 총서는 그 과정의 기록이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위한 지도다. 이제 2절에서는 이 책이 다루는 범위와 방법을 분명히 하고, 2장부터는 센터의 출범과 활동, 그리고 향후 중장기 운영체계를 차근히 펼쳐보려 한다.

2) 세종학과 세종지역학센터의 역할

세종학은 '세종이라는 도시를 설명하는 언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도시를 설명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정리하는 일이 아니다. 지금의 세종이 어떤 질서로 작동하고, 어떤 가치로 묶이며, 어디를 향해 가는지까지 함께 읽어내는 일이다. 그래서 세종학은 역사와 지리 같은 전통적 분야에 머무르지 않고, 도시의 삶을 구성하는 사회, 문화,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 등 다양한 층위를 함께 다룬다. 세종지역학센터가 '세종특별자치시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러 분야를 융복합 관점에서 연구하는 기관임을 밝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 세종학의 가치 지향

지역학은 종종 '보편 법칙을 세우는 연구'와 대비되는 방식으로 설명된다. 전자가 어느 지역에도 통용되는 일반 법칙의 정립을 목표로 한다면, 후자는 지역 특유의 문화와 세계관을 이해하고 지역 간 차이와 특징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둔다. 세종학도 이 흐름 위에 서 있다. 세종을 '다른 도시에도 적용되는 하나의 모델'로만 정리하면, 세종의 삶을 떠받치는 맥락이 빠지기 쉽다. 이와 반대로, 세종만의 경험과 변화의 결을 제대로 기록하고 해석하면, 그 고유성이 곧 도시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지역학을 통해 '무엇을 연구할 것인가'만이 아니라 '어떻게 축적할 것인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지역학 연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성과는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원천자료의 수집과 해제 등 기본에 충실해야 하고, 과제의 우선순위를 세워야 한다는 관점은 세종학 운영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역학 연구기관은 지방정부 지원 구조 속에서 단기간의 가시 성과에 대한 압박을 받기 쉬운데, 그 조급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경고 역시 계획 단계에서부터 새겨둘 대목이다.

(2) 세종학의 '연계성과 관계성' 그리고 '독자성과 특수성'

세종학은 세종만의 독자성을 다루되, 동시에 세종을 둘러싼 관계망을 함께 본다. 세종학 연구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인근 지역과의 연계성·관계성을 고려하면서도 세종의 독자성·특수성을 함께 세워야 한다는 논의는, 세종학이 '닫힌 지역학'이 아니라 '열린 지역학'이어야 함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세종 시민의 다양성과 새롭게 형성되는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 주체성'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점은, 세종학이 연구실 안에서만 완성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이런 맥락에서 세종학은 두 가지 질문을 동시에 품는다.

· 세종은 무엇을 기반으로 '세종다움'을 말할 수 있는가

· 그 근거를 시민의 언어로 어떻게 공유하고 확장할 것인가

(3) 지역학 연구 체계로서 세종지역학센터

세종지역학센터가 맡는 역할은 크게 세 층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쌓음'이다.

세종학은 결국 자료와 기록의 축적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원천자료를 수집하고, 해제하며, 맥락을 붙이고, 다음 연구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리하는 작업이 필수다. 이 축적은 단행본 발간 같은 결과물뿐 아니라, 데이터와 목록, 정리된 아카이브라는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기반'까지 포함한다.

둘째, '전환'이다.

연구 성과는 그대로 두면 연구 성과로 남는다. 시민이 체감하고 도시가 활용할 수 있으려면, 연구를 콘텐츠, 교육, 프로그램, 전시, 출판 같은 형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센터가 여러 분야를 융복합적으로 다룬다는 선언은, 바로 이 전환의 다양성을 열어두는 장치라 할 수 있다.

셋째, '연결'이다.

세종학은 단독으로 진행할 수 없다. 포럼, 위원회, 조례 같은 제도적 장

치, 교육 프로그램 같은 확산 장치가 함께 맞물릴 때 지속성이 생긴다. 실제로 세종학 추진 활동의 흐름 속에는 '세종연합교육대학', '세종학포럼', '세종학진흥위원회', '조례 추진' 등이 함께 등장한다. 여기서 '연결'은 네트워크만 의미하지 않는다. 운영을 위한 실무의 연결까지 포함한다. 예컨대 학술지 발간 같은 정기 사업은 편집과 심사, 출간까지 상당한 노동력이 요구되므로, 행정적 업무 처리를 전담할 인력이 필요하고, 학회 설립 및 학술지 발간을 위한 전담 인력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는 지적은 센터 운영의 현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4) 세종지역학센터의 역할과 기대

이번 총서에서는 '센터가 무엇을 해왔다'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센터가 수행해 온 쌓음, 전환, 연결의 기능을 중장기 계획 속에서 다시 정렬하고, 실행 가능한 구조로 고정하는 것이다. 특히 현시점에서 추가 조사나 이해관계자 인터뷰가 어렵다면, 그 빈칸을 무리하게 메우기보다, 기존 정책연구와 발간물, 내부 운영 기록을 근거로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고도화하며, 무엇을 멈출 것인가"를 더 선명하게 결정하는 편이 실효적이다.

3) 이번 책의 범위와 구성

이 책(4권)은 세종지역학센터가 그동안 해온 일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중장기 운영의 언어'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은 단기간 성과를 뽑아내는 방식보다는 도시의 유무형 자산을 꼼꼼히 정리하고 연구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 위에서 출발해 왔다. 그리고 세종학 추진의 흐름은 '정책과제 발간' 이후 '진흥계획(단기-중기-장기 관점의 실천 계획) 수립', 그리고 '연구센터(가칭) 설립'로 이어지는 단계적 모델로 진행 중이다.

세종학진흥위원회 논의 과정에서도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연구용역'과 '세종학 연구센터와 같은 독립기구'의 필요가 언급된 점은, 계획과 조직이 함께 가야 한다는 현실 감각을 보여준다.

이 총서는 1권부터 3권까지 세종시의 '인물', '기차역', '한글과 미래'라는 서로 다른 창으로 세종을 비춰왔다. 4권은 그 연장선에서, 세종지역학센터가 세종의 정체성을 구현하고 정립하기 위해 수행해 온 연구와 실천을 중장기 운영체계로 묶어내고자 한다. 이번 책에서는 센터 내부 기록과 기존 발간물, 그리고 그간 수행한 정책연구에서 제시된 문제의식과 방향을 토대로, 무엇을 계속하고 무엇을 고도화하며 무엇을 멈출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책은 세종지역학센터가 걸어 온 발걸음을 톺아보고, 앞으로 걸어 나갈 방향성을 검토하고자 하는 시도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의 흐름을 따른다.

첫째, 1부는 '세종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라는 문제의식 위에서 왜 지금 세종지역학이 필요한지와 세종학 및 센터의 역할을 정리한다.

둘째, 2부는 센터의 탄생과 역할을 짚고, 센터가 수행해 온 활동을 세종지역학 LAB, 세종지역학 Contents, 세종지역학 Platform의 틀로 재분류해 '현재의 자산'으로 목록화한다.

셋째, 3부는 중장기 비전과 목표, 추진 전략, 조직 및 운영계획, 로드맵을 하나의 설계도로 제시해 "다음 단계의 질서"를 세우는 데 초점을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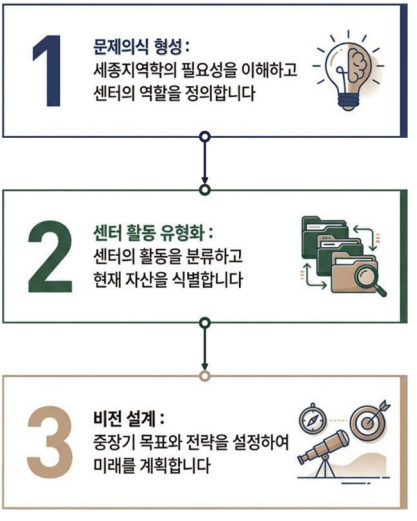


그림 1. 이 책의 구성

2. 세종지역학센터의 출범과 활동 정리

세종학의 제도적 기반은 2019년 세종학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해 마련되었다. 이 시기를 기점으로 세종시는 지역의 역사·문화·환경 등을 탐구하고 도시 정체성을 정립하기 위한 정책적 문제의식을 제도권 안에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하였다. 이는 세종학이 단순한 개별 연구의 축적이 아니라, 도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공적으로 논의하는 과제로 자리 잡는 출발점이었다.

세종학의 실질적 조직 기반은 2021년 3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개소를 통해 형성되었다. 발표 자료의 흐름도에 따르면, 연구센터 개소는 신규 원장의 공약과 전략과제 수행 속에서 추진되었으며, 이후 세종학 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같은 해 11월에는 세종학포럼이 개최되었는데, 이는 세종학의 가치와 연구 방향을 공론화한 첫 본격 행사로서 의미를 지닌다. 당시 포럼에서는 세종학의 정체성, 세종지역의 역사적 흔적, 세종시의 생성과 형성 과정, 미래 문화비전, 신도시와 읍면지역의 격차, 세종학의 범위와 방향 등이 함께 논의되었다. 따라서 2021년은 세종학의 조직적 출범과 공론장의 개시가 동시에 이루어진 원년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22년은 세종학의 첫 연구 축적이 가시화된 시기였다. 이 해에는 보조금 사업을 기반으로 기획총서 『세종인물여행』이 발간되었고, 세종학세미나와 세종학포럼이 함께 운영되었다. 이를 통해 세종학은 정책적 논의의 수준을 넘어 총서 발간, 세미나, 포럼이라는 구체적 형식을 갖추게 되었으며, 지역의 인물과 자산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작업이 실제 성과물로 축적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2022년은 세종학이 '필요한 연구'에서 '남는 연구'로 넘어가기 시작한 시기였다.

2023년은 세종학의 연구 주제가 한층 확장된 시기였다.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가 발간되었고, 세종학세미나와 세종학포럼이 지속되면서 연구의 초점은 인물 중심의 접근을 넘어 장소, 철도, 생활사, 한

글과 정체성의 문제로 넓어졌다. 이는 세종학이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정리하는 수준을 넘어, 도시의 공간 구조와 생활문화, 상징 자원을 함께 다루는 다층적 지역학으로 외연을 확장해 간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024년은 세종지역학센터의 독자적 운영체계가 본격화된 전환점이었다. 이 시기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가 대전과 세종으로 분리되면서, 세종 측 조직의 명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제기되었다. 일반적으로 지역학 연구기관은 '지역명+학+센터'의 형식을 취하지만, 세종의 경우 '세종학센터'라는 명칭이 지역학으로서의 세종 연구를 뜻하는 동시에 세종대왕의 업적과 사상을 다루는 학문과도 개념적으로 중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세종 측 조직은 '세종학센터'가 아니라 '세종지역학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다. 다시 말해, '세종지역학센터'라는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 연구기관이라는 성격을 보다 명확히 드러내기 위한 선택이며, 세종학의 학문적 정체성을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는 제도적 명명이라 할 수 있다.

2024년 2월 세종지역학센터가 분리 개소하면서 센터는 기존 연구 축적을 바탕으로 보다 자율적인 활동 기반을 갖추게 되었다. 같은 해에는 지역학협의체 '다모임'의 결성, 소식지 「세종 INSIDE-OUT」 발간, 기관 간 MOU 체결 등이 이어지며 연구를 넘어 기록, 소통, 협력의 기능이 함께 강화되었다. 이 시점부터 세종학은 단순한 연구 프로젝트의 집합을 넘어, 지역 안팎의 기관과 사람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2025년은 이러한 흐름이 기능 체계로 정리된 시기였다. 센터의 활동을 세종지역학 LAB, Contents, Platform의 세 축으로 구조화하여 LAB에는 세종학포럼, 계절 세미나, 총서 발간을 진행하고, Contents에서는 『세종인물여행』 영상 제작, 뉴스레터 발간과 '찾아가는 청소년 세종학'이, Platform에서는 다모임, 운영위원회, 관련기관 MOU를 진행했다. 이는 세종학이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이를 시민에게 번역하고 지

역사회와 연결하는 운영 원리를 스스로 체계화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종학의 흐름은 2019년 제도적 기반 형성, 2021년 조직 출범과 공론장 개시, 2022년 첫 연구 성과의 가시화, 2023년 연구 주제의 확장, 2024년 독자 체계화와 플랫폼 전환, 2025년 기능 구조의 정착이라는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세종학이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 세종시의 정체성을 해석하고 시민과 공유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복합적 지역학으로 성장해 온 여정이라 할 수 있다.

II

센터의 세 가지 엔진

1. 세종지역학센터의 코어, 세종지역학 LAB
2. 센터와 시민을 잇는, 세종지역학 Contents
3.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Platform



센터의 세 가지 엔진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은 개별 사업의 단순한 나열로 이해되기보다, 지역을 읽는 질문을 만들고, 이를 시민에게 전달 가능한 언어로 번역하며, 다시 여러 기관과 사람을 연결하는 구조 속에서 파악될 필요가 있다. 지역학이란 특정 지역을 이해하려는 목적 아래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융합적이고 총체적으로 전개하는 학술 활동이며, 그 목적은 지역자원을 찾아내 지역발전의 초석으로 삼고 시민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지역공동체를 강화하는 데 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이러한 지역학의 목적을 세종이라는 도시의 조건 속에서 구체화해 온 조직이라 할 수 있다.

특히 2025년부터의 센터의 활동은 세종지역학 LAB, Contents, Platform의 세 축으로 구조화하면서 사업의 방향성을 설정하였다. LAB이 시정의 조사 연구기관으로서 연구 의제를 발굴하고 지식 자산을 축적하는 기능이라면, Contents는 그 성과를 시민과 교육 현장, 문화콘텐츠로 번역하는 기능이며, Platform은 이를 지속 가능하게 하는 협력망과 운영 기반을 뜻한다. 이러한 구분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세종지역학센터가 그간 축적해 온 활동의 성격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작동 원리라고 할 수 있다.

1. 세종지역학센터의 코어, 세종지역학 LAB

1) 세종학포럼: 세종학을 이끄는 공론장

세종학포럼은 세종지역학 LAB의 핵심 공론장이다.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구는 내부 과제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행정과 연구 현장을 잇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통해 확장되어 왔다. 이러한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이 바로 세종학포럼이다. 즉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구가 단지 내부 과제 수행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과 전문가, 행정과 연구 현장을 잇는 공개적 논의 구조를 갖추게 된 데에는 세종학포럼의 역할이 컸다.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관련 활동은 2019년 세종학진흥위원회 구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2021년 3월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개소 이후 같은 해 11월 세종학포럼을 개최하면서 본격적인 공론장의 형식을 갖추게 되었다. 이 시기 활동은 수탁 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포럼은 이후 세종학의 정체성과 방향을 외부와 공유하는 핵심 장치로 자리잡게 되었다.

처음으로 열린 2021년 세종학포럼은 지역학으로서 세종학의 문제의식을 가장 먼저 집약적으로 드러낸 출발점이었다. 당시 포럼에서는 세종학을 '세종시' 지역의 장소성을 연구하는 학문으로 분명히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세종시에 포함된 연기군 지역뿐 아니라 공주시 편입 지역, 청원군 부용면의 역사적 흔적까지 함께 정리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도출되었다. 세종시는 미완성의 도시이자 미래 행정수도로서 도시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구현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기되었다. 이와 함께 세종시 내부의 신도시와 읍면지역 간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역시 세종학 차원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로 공유되었다. 주제발표 역시 과거의 역사적 정체성과 흔적, 현재의 도시 생성과 형성과정, 미래의 문화비전으로 구성되어, 세종학이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연구라는 점을 선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림 2. 2021년 세종학포럼

▸ 2021년 세종학포럼 프로시딩

기조강연	· 지역학의 가치와 세종학의 의의 – 이익주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주제발표1 (과거)	· (과거) 세종지역의 역사적 정체성과 흔적들 – 김민석 (충남대 국사학과 연구교수)
주제발표2 (현재)	· (현재) 세종시의 생성과 형성과정 – 최정우 (목원대 도시공학과 교수)
주제발표3 (미래)	· (미래) 세종, 미래 정체성을 묻는다 – 안남일 (고려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라운드 테이블	· 종합토론(세종학의 연구 목적·방향) – 좌장 : 김종남 (대전시 평생교육진흥원 원장) – 토론 김보림 (충북대 교수/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 김성하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남동걸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윤희일 (경향신문 부국장/ 선임기자) 한상헌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센터장)

2022년 포럼에서는 세종학의 특별함과 중부권 메가시티, 지역학의 방향 등이 논의되면서 세종학의 범위와 관계성을 둘러싼 고민이 한층 구체화되었다. 이 시기 발표에서는 세종학이 단지 세종 시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시민참여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점이 강조되었고, 세종이 중부권 메가시티의 중심으로 기능하기 위해 내부 갈등과 지역 간 관계를 함께 성찰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되었다. 이는 세종학포럼이 세종 내부의 정체성 문제를 다루는 데 그치지 않고, 더 넓은 공간적 관계망 속에서 세종의 위치를 재해석하려는 시도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 2022년 세종학포럼

▸ 2022년 세종학포럼 프로시딩

기조강연	· 지역학, '세종학'의 기대 방향과 과제 –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
주제발표 1	· 세종시에서 시작되는 중부권 메가시티의 미래를 생각한다 – 김시덕 (작가/ 문헌학자)
주제발표 2	· 저마다 다른 세종학, 어떻게 풀 것인가 – 한상헌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센터장)
라운드 테이블	· 종합토론 – 좌장 : 최창희 (한림대 명예교수) – 토론 김양식 (청주대 교수) 김인수 (대구교육대 교수) 윤철원 (세종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임동욱 (미디에이터스 대표) 황혜란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수석연구위원)

2023년 세종학포럼은 세종과 한글의 관계를 통해 미래전략수도 세종의 정체성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세종시는 도시 출범 이후 한글을 활용하여 로컬리티를 창조하는 상황적 맥락이 반영되었고, 당시 대한민국문화도시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숨은 전략이 포함되었다. 이와 같이 이번 포럼에서는 '미래전략수도 세종과 한글, 한글의 가치로 풀어내는 지역정체성'을 주제로, 훈민정음 창제의 의미와 세종의 시대를 다시 읽는 시도, 문자라는 추상 체계와 추상도시 세종을 연결하는 해석, 그리고 한글을 통해 세종시의 정체성을 선취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논의되었다. 즉 이번 포럼은 세종학이 역사적 자산을 단순히 계승하는 차원을 넘어, 한글이라는 국가적 상징 자원을 도시브랜드와 문화적 미래 자산으로 재해석하려는 방향을 분명히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림 4. 2023년 세종학포럼

▸ 2023년 세종학포럼 프로시딩

주제발표 1	· 한글의 정신, 세종의 시대 – 이규철 (성신여대 사학과 교수)
주제발표 2	· 문자라는 추상, 추상 도시 세종 –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지역학연구센터 센터장)
주제발표 3	· 한글의 디자인, 세종시 도시 브랜드 디자인 – 유정미 (국제타이포그래피비엔날레 조직위원장/대전대 교수)
특별제안	· 지역학 플랫폼으로서 세종학센터의 방향과 과제 –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지역학연구센터)
종합토론	· 종합토론 – 좌장 : 양승우 (서울시립대 교수/전 서울학연구소 소장) – 토론 권응상 (대구대 문화예술학부 교수)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 미래유산대학원 원장) 주혜진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지역학연구센터) 현혜경 (제주연구원 연구위원) 황재훈 (충북대 도시공학과 교수)

2024년 세종학포럼은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세종의 역사적 사건과 장소, 지역사적 흐름, 역사문화자원의 활용 전략을 다루었다. 2024년 5월 문화재가 국가유산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기존 보존·관리의 측면에서 활용이 강조되는 상황적 맥락이 반영된 주제이다. 이번 포럼에서의 기조강연과 주제발제, 종합토론은 물론, 세종시 역사적 장소를 예술적 움직임으로 풀어낸 Dance Film 「불휘」를 함께 구성함으로써 세종의 역사문화자원을 연구와 예술, 보전과 활용의 문제로 동시에 조망하였다. 이는 세종학포럼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를 넘어, 역사문화자원의 현재성과 지속가능성을 다각도로 토론하는 장으로 성숙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림 5. 2024년 세종학포럼

▸ 2024년 세종학포럼 프로시딩

기조강연	· 세종시에 관통하는 역사적 사건과 장소 – 김양식 (청주대 교수/ 전 충북학연구소장)
주제 발제 1	· 지역사적 관점에서 본 세종시에 흐르는 역사 – 윤철원 (세종문화원 부원장)
주제 발제 2	· 세종시 역사문화자원의 활용방안과 전략 – 태지호 (안동대 교수)
종합토론	· 종합토론(세종시 역사·문화 자원의 보전과 활용 방안) – 토론 고순영 (지역앤사람역사연구소 소장)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위원) 신호림 (안동대 교수) 안형기 (한국고고환경연구소 실장) 이자은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2025년 세종학포럼은 '박물관과 도시 브랜딩, 박물관도시 세종의 미래'를 주제로 정했다. 시정 4기의 5대 비전(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미래박물관도시, 정원·관광 선도도시, 스마트시티) 중 하나인 미래박물관도시, 즉 박물관이 하나의 문화공간을 넘어 도시 브랜드를 구현하는 소재이자 매체로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고찰하기 위해서였다. 세부적으로는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의 변화, 사용자 중심 도시디자인, 뮤지엄 콤플렉스를 통한 도시 브랜딩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여기서 세종학포럼의 질문은 더 이상 "세종학이 무엇인가"를 묻는 단계에 머물지 않는다. 오히려 세종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기반으로 어떤 도시 비전을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이를 도시브랜드와 문화정책으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실천적·전략적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2025년 포럼은 세종학포럼이 개념적 정립의 장을 넘어 정책적 상상력과 도시 미래 전략을 논의하는 장으로 확장되었음을 의미하였다.



그림 6. 2025년 세종학포럼

▸ 2025년 세종학포럼 프로시딩

주제발표 1	· 박물관, 우리에게 무엇이었고, 앞으로 무엇이어야 하는가 – 태지호 (국립경국대 교수)
주제발표 2	· 도시의 리빙 플랫폼(Living Platform)으로서의 박물관 – 안성희 (홍익대 교수)
주제발표 3	· 뮤지엄 콤플렉스를 통한 세종시 도시 브랜딩 성공 전략 – 박정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연구위원)
종합토론	· 종합토론 〈세종시 박물관 도시 브랜딩 구현 전략과 과제〉 – 토론 김진형 (경남연구원 연구위원) 배은석 (한국외국어대 교수) 성종현 (국립경국대 교수) 이순열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장동우 (㈜PAL문화유산센터 대표)

이처럼 세종학포럼은 2021년 출범 이후 세종학의 정체성 정립, 지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해석, 한글과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재인식, 박물

관과 도시브랜딩 같은 미래 전략 의제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연구의 질문을 축적하고 심화해 왔다. 다시 말해 세종학포럼은 세종지역학 LAB이 생산한 문제의식을 사회적 공론으로 확장하고, 그 결과를 다시 후속 연구와 총서, 세미나의 방향으로 환류시키는 중심축이라 할 수 있다. 세종학의 흐름을 읽는 데 있어 포럼은 단순한 행사 일정이 아니라, 세종이 스스로를 어떻게 설명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사유의 궤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림 7. 세종학포럼 주제의 흐름과 논의 확장 과정

2) 세종학총서: 지식 자산의 축적

세종학총서는 세종지역학 LAB의 연구 성과를 가장 응축된 형태로 축적하는 장치다. 세종학포럼이 세종을 둘러싼 문제의식을 공론장으로 확장하는 장이라면, 세종학총서는 그 질문을 정리하고 해석하여 지속 가능한 지식 자산으로 남기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총서는 단순한 출판 실적이 아니라, 세종이라는 도시를 어떤 관점에서 읽어 왔는지, 그리고 그 질문이 해마다 어떻게 확장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세종지역학 LAB의 핵심 결과물이다. 세종지역학센터에서는 세종의 하루를 기록하기 위해 총서라는 장치를 마련하였고, 다루는 주제에 따라 기획총서·연구총서·교양총서·자료총서로 분류하였다.

지금까지 세종지역학센터에서는 기획총서 3권을 발간하였다.

▸ 첫 번째 총서, 『세종인물여행』

세종학총서의 출발점은 2022년 발간된 『세종인물여행』이다. 이 총서는 현재의 세종시와 관련된 역사인물 40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정리한 작업으로, 세종이 단지 2012년 출범한 신생 행정도시가 아니라 오랜 시간 다양한 인물과 사건, 사상과 문화가 축적된 삶터였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특히 세종시의 역사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신도시 이미지가 강한 세종 지역의 깊은 역사를 드러내고, 지역사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소재를 확보하면서, 그간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서 소재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출간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세종인물여행』의 가장 큰 의미는 세종의 정체성을 추상적인 개념이나 행정적 형식이 아니라, 세종시라는 공간적 영역에서 태어났거나 활동했던 사람의 삶과 행적을 통해 서사화했다는 데 있다. 이 총서는 조선 초기와 중기의 충신들, 조선 후기의 학자와 선비들,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 근대 문학의 한 축, 그리고 화폭과 선율에 감도는 풍류의 인물들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다. 이는 세종이라는 공간이 단지 행정수도로 기획된 도시가 아니라, 이미 다양한 역사적 인물과 문화적 층위를 품어 온 지역이라는 사실을 구체적인 인물군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해 『세종인물여행』은 세종을 '짧은 역사의 도시'가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를 품은 도시'로 읽게 만드는 첫 번째 지식 자산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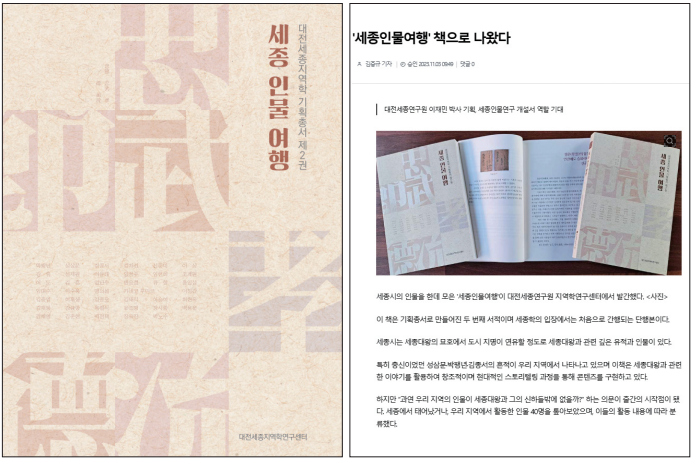


그림 8. 세종지역학센터 기획총서 제1권 『세종인물여행』 표지(左), 발간 기사(右)

▸ 기획총서 제1권 『세종인물여행』 목차

격랑의 시대 속 꿋꿋이 지켜간 충절	죽음으로도 바꾸지 못한 충절, 박팽년
	충절의 화신, 매죽헌(梅竹軒) 성삼문
	못 다 핀 대호(大虎)의 꿈, 김종서
	폭군에게 직언하다 순절한 환관, 김처선
	청운(靑雲)의 꿈을 인간애로 승화하다, 신준미
	조선 마지막 산림이자 붕당정치의 주역, 이 상
지역 인재 양성에 힘쓴 선비들	덕망과 절의를 갖춘 司書 1호, 김 휴
	백성만을 바라보는 공명정대(公明正大), 성제원
	시대를 앞선 도학적 경세가, 이유태
	순수한 학문 연구의 표상, 임성주
	조선의 마지막 선비, 임헌회
	소현세자를 구한 지략, 조계원

위기에서 빛을 발한 충무 정신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다, 이 도
	고려를 사수한 연기대첩의 명장, 김 흔
	외팔의 맹장, 충절의 화신이 되다, 임난수
	백척간두의 조국을 지키다, 변응정
	진충보국(盡忠報國)의 공신, 류 형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애국지사들	일제하 민족독립운동의 대부, 홍일섭
	구한말 의병 운동의 불꽃, 임대수
	3.1 만세운동의 기수, 이수욱
	근대 연기군의 기록자, 맹의섭
	조선을 사랑한 자유인, 가네코 후미코
효와 덕의 모범이 되어	세종대왕이 인정한 효행의 상징, 이정간
	조선시대 정표를 대표하는 효자, 김충열
	덕(德)이 솟아나는 샘물, 이후생
	부강을 사랑했던 백마고지 전투 영웅, 김종오
풍요로운 삶과 정체성을 찾아	부강의 조선상인 집안, 김재식 일가 3대
	근대 종교운동의 선구자, 이승여
	농업 혁신의 큰 별, 최현옥
	주류백제를 찾아서, 김재붕
근대 문학의 한 축으로	변함없는 나무 백수(白樹), 강금종
	분단의 비극을 증언하다, 육철식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침묵, 윤조병
	시종일관 좋은 시인, 장시종
	백수문학의 거인, 백용운
	조치원 문학의 대모(代母), 김제영
화폭과 선율에 감도는 풍류	살아 움직이는 피리 연주의 거장, 김준현
	중고제의 맥을 잇다, 백점택
	나는 '심플'하다, 장욱진
	한국화에 '쪽빛'을 심다, 박노수

무엇보다 『세종인물여행』은 발간 이후에도 살아 움직이는 총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기반으로 세종FM과 연계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세종시의 역사인물들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 계획은 『세종인물여행』이 단순한 연구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역사인물을 매개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며 세종시의 지역정체성을 형성하는 교육적·문화적 콘텐츠로 확장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이처럼 『세종인물여행』은 세종학총서의 첫 결과이면서, 세종의 역사적 깊이를 사람의 서사를 통해 복원한 작업이자, 세종학이 이후 어떤 방식으로 지역을 읽고 축적할 것인지를 보여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을 구성하는 시간의 층위를 인물의 행적과 정신을 통해 드러냈다는 점, 그리고 그 성과가 다시 영상과 교육, 시민 인식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는 점에서, 『세종인물여행』은 세종학총서의 최초 성과를 넘어 세종지역학 LAB의 작동 방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뒤이어 발간된 총서가 장소와 생활사, 한글과 미래 비전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 책이 세종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하고 문화적 소재의 확장을 견인한 첫 작업이었기 때문이다.

▸ 두 번째 총서,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세종학총서의 두 번째 성과로서, 세종학의 연구 대상을 인물 중심의 서사에서 장소와 생활의 층위로 확장한 작업이었다. 세종지역학센터가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에서 분리되고 처음으로 출간한 단행본이라는 점에서도 상징성이 크다. 첫 번째 총서인 『세종인물여행』이 세종시의 공간적 배경으로 떠오른 인물들을 발굴하고 기록함으로써 세종의 역사적 정체성을 사람의 서사로 복원하였다면,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세종의 여덟 기차역과 그 주변 마을, 이동의 흔적과 생활의 풍경을 통해 세종의 장소성과 공간적 결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해 세종학의 시선을 사람에서 공간으로, 점의 역사에서 선과 면의 생활사로 넓힌 전환점이었다.

이 총서의 중요한 문제의식은 왜 세종에서 '기차역'을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있다. 세종은 국토 중앙에 위치하고 사통팔달의 도시로서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조건은 누구나 '들락날락'할 수 있는 열린 도시라는 성격과 맞닿아 있다. 기차역은 이러한 도시의 특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이자, 사람과 사람, 사람과 지역을 이어 주는 소통과 이동의 결절점이다. 따라서 세종의 기차역을 기록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통시설을 소개하는 일이 아니라, 지역이 형성해 온 삶의 궤적과 관계망, 그리고 공동체의 기억을 읽어 내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조치원역 전경


전의역 전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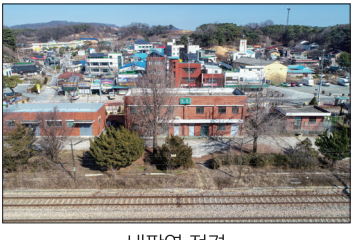

부강역 전경


소정리역 전경



전동역 전경


서창역 전경


내판역 전경


매포역 전경

그림 9. 총서에서 다룬 8개의 기차역 전경

특히 세종의 여덟 기차역은 각기 다른 시간과 역할을 품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소정리역, 전의역, 전동역, 서창역, 조치원역, 내판역, 부강역, 매포역은 저마다 지역의 삶과 변화, 소통과 이동의 흔적을 담아내고 있으며, 이를 하나의 선로 위에 놓인 공간으로만 볼 수 없게 만든다. 예컨대 조치원역과 부강역은 기차역과 함께 매우 뚜렷한 지역사적 의미를 보여주는 장소이다. 조치원은 역사와 함께 근대 도시로 성장하였고, 부강은 갑천과 금강, 그리고 장터와 철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가 교차한 공간으로 기억된다. 또한 전의역은 만세운동의 현장과 연결되며, 기차역이 단순한 이동의 통로를 넘어 지역의 역사적 사건과 감정, 집단 기억이 응축된 장소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종의 기차역은 저마다 다른 지역성과 역사성을 품고 있으며, 이를 따라가는 일은 세종이라는 도시를 생활사와 공간사의 층위에서 다시 읽는 일과 다르지 않다.

또한 이 총서는 기차역의 현재적 가치에도 주목한다. 기차는 승용차 중심 사회에서 대량 이동의 효율성을 지닌 공공 교통수단이며, 청년과 노년층, 학생과 시민에게 비교적 평등한 이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매체이기도 하다. 세종의 경우에도 일부 역은 기능이 약화되거나 사라졌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역은 지역의 흐름을 연결하고 일상적 이동을 돕는 수송의 거점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기차역은 과거의 흔적을 담은 유산인 동시에, 오늘의 삶을 지탱하는 생활기반시설이기도 하다.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바로 이 이중적 성격, 곧 기억의 장소이자 현재의 생활 인프라라는 두 층위를 함께 포착하고자 한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총서의 또 다른 의의는 발간 이후에도 책이 책으로만 머물지 않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지역학 총서는 서가에 꽂히는 것으로 역할을 마치기 쉽지만,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이후 다양한 문화적 실천으로 다시 번역되며 새로운 독자와 만났다. 이는 지역학의 성과가 결과물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전시와 희곡, 시각예술, 점자책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총서는 한 번 정리된 삶의 기록이 다시 움직일 때, 지역의 문화는 일회적 행사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물결로 확장될 수 있다는 점을 다음과 같이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첫째, 이 총서는 청년의 시선이 만든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로 확장되었다. 고려대학교 문화유산과 학생들은 이 책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조치원의 시간을 '디지털로 걷는' 전시로 재구성하였다. 과거의 기록을 단순히 소개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AI 영상과 VR, 디오라마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한 사람의 일상을 따라가듯 조치원역의 변화와 의미를 새롭게 풀어낸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지역의 기록이 더 이상 보존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학습 자료를 넘어 창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10. 디지털 아카이브 전시로 재구성된 조치원역의 시간

둘째, 총서의 서사는 지역작가의 희곡으로 이어지며 문학적·공연적 가능성을 열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가 총서를 바탕으로 희곡 집필을 준비하게 되었다는 사실은, 한 도시의 역사가 문장으로 정리된 뒤 다시 무대의 언어로 옮겨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연구가 예술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세종 안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장소의 기억이 다시 공연예술의 상상력으로 번역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그림 11. 희곡으로 이어진 총서의 서사

셋째, 이 총서는 점자책 제작으로 이어지며 포용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세종지역학센터가 세종점자도서관과 협력하여 총서를 점자책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추진한 것은, 지역학의 성과가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기록의 사회적 환원이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며, 세종학이 접근성과 공공성을 함께 고민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준다.

넷째, 총서는 시각예술가들의 전시 프로젝트로도 재해석되었다. 여러 시각예술가는 이 책을 단순한 참고자료가 아니라 현장을 향한 안내서로 삼아 실제 역과 주변 공간을 답사하고, 그 경험을 회화와 영상, 설치 등 각자의 매체로 풀어낸 '기차 프로젝트' 전시를 선보였다. 이는 총서가 지역의 과거를 정리하는 텍스트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가의 감각을 자극하여 다시 '지역의 시간과 장소'를 새롭게 읽게 만드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책의 기록이 예술가의 시선을 거쳐 또 다른 형식의 장소 해석으로 이어진 것이다.



그림 12. 기차역 총서를 활용한 '기차 프로젝트' 전시

결국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의 성과는 단순히 두 번째 총서가 발간되었다는 사실에 있지 않다. 이 총서는 세종의 기차역과 마을, 이동과 생활의 흔적을 복원한 연구 성과이면서 동시에, 왜 세종에서 기차역을 다시 바라보아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작업이었다. 기차역은 세종의 과거를 품은 장소인 동시에 현재의 삶을 잇는 이동의 매개이며, 지역의 관계와 기억을 축적한 상징적 공간이다. 더 나아가 이 총서는 그 기록이 전시와 희곡, 시각예술, 점자책이라는 또 다른 언어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세종지역학 LAB의 축적이 어떻게 문화적 실천과 사회적 환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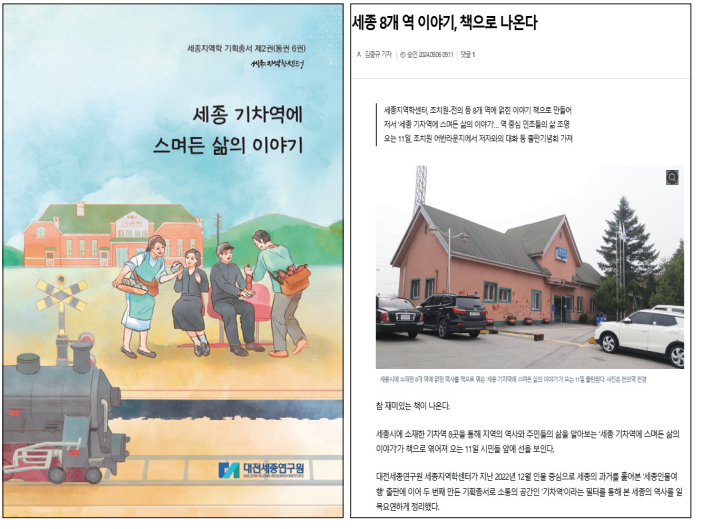


그림 13. 세종지역학센터 기획총서 제2권『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표지(左), 발간 기사(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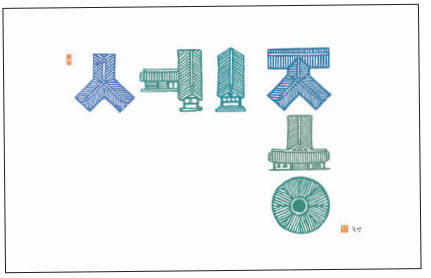
▸ 기획총서 제2권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목차

세종에서 '기차역'을 바라봐야 하는 이유
우리 지역의 중심, 조치원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1.1. 조치원역, 100년의 기억
1.2. 신문 기사 속 조치원역
1.3. 조치원역에 깃든 이야기
역사의 물결이 흐르는 전의역 이야기
2.1. 함성의 여운이 느껴지는 전의역
2.2. 신문 기사 속 전의역
2.3. 전의역에 깃든 이야기
물길에 놓인 기찻길, 부강역 이야기
3.1. 포구의 유산을 간직한 부강역
3.2. 신문 기사 속 부강역
3.3. 부강역에 깃든 이야기
경부선의 시간이 멈춘 신호장역 이야기
4.1. 소정리역(小井里驛)
4.1.1. 소정리역이 지나온 길
4.1.2. 신문 기사 속 소정리역
4.1.3. 소정리역에 깃든 이야기
4.2. 전동역(全東驛)
4.2.1. 전동역이 지나온 길
4.2.2. 신문 기사 속 전동역
4.2.3. 전동역에 깃든 이야기
4.3. 서창역(瑞倉驛)
4.3.1. 서창역이 지나온 길
4.3.2. 신문 기사 속 서창역
4.3.3. 서창역에 깃든 이야기
4.4. 내판역(內板驛)
4.4.1. 내판역이 지나온 길
4.4.2. 신문 기사 속 내판역
4.4.3. 내판역에 깃든 이야기
4.5. 매포역(梅浦驛)
4.5.1. 매포역이 지나온 길
4.5.2. 신문 기사 속 매포역
4.5.3. 매포역에 깃든 이야기

▸ 세 번째 총서,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는 세종지역학 기획총서 제3권으로, 이규철, 한상헌, 이재민, 유정미, 배준영의 글을 묶어 2024년에 발간한 총서이다. 이 책은 앞선 총서들이 인물과 기차역이라는 지역의 구체적 자산을 발굴하고 서사화하는 데 집중했다면, 세 번째 총서에서는 한글을 매개로 세종시의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를 본격적으로 탐색했다. '이 책은 도시가 한글을 품는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해, 세종시가 왜 한글을 해야 하는지와 앞으로의 방향을 차분히 정리한 총서라 할 수 있다.

이 총서의 가장 큰 의미는 세종과 한글의 관계를 단순한 상징 차용의 수준에서 다루지 않고, 역사적 맥락과 도시 정체성, 정책 실천, 디자인, 콘텐츠 구현까지 포괄하는 다층적 문제로 확장했다는 데 있다. 실제로 이 책은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 문자라는 추상과 추상도시 세종, 한글을 왜 사랑해야 하는가라는 문화적·정책적 질문,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한글 문헌을 활용한 콘텐츠 구현 방안 등 다섯 개의 시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글을 단순히 도시 홍보의 표어가 아니라, 세종이라는 도시를 해석하고 기획하는 핵심 자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시도였던 것이다.



김도영, 〈한옥한글-세종〉,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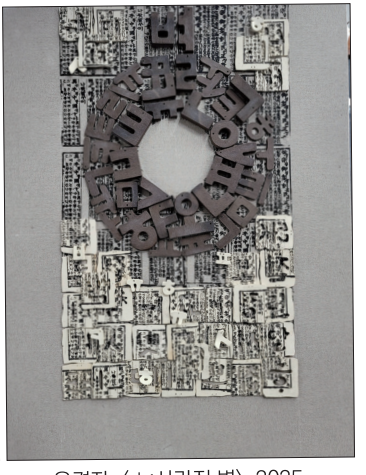
김순자, 〈사라진 자음〉, 2022.



이채론, 〈우리사랑 민초단〉, 2023.



금정희, 〈메모리〉, 2025.



유경자, 〈ㅇ:사라진 별〉, 2025.

그림 14. 한글을 활용한 세종 지역작가들의 작품

특히 이 총서는 '세종'이라는 도시명 자체가 세종대왕과의 연관성을 자연스럽게 환기한다는 조건 위에서, 한글을 어떻게 지역의 문화적 자원으로 전환할 것인지에 주목한다. 책의 한 대목은 이 지역이 '세종'이라고 불리는 순간, 세종대왕과 주변 인물의 삶과 이야기가 새로운 문화적 소재로 인식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며, 시민 제안과 행정의 수용을 통해 한글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이 실제로 추진되고 있음을 짚고 있다. 또 세종시 차원에서 조례 제정과 전담 부서 구성을 통해 한글 브랜딩의 행정적 체계도 정비되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는 한글이 세종에서 단순한 기념의 대상이 아니라, 제도와 정책, 시민 인식과 문화기획을 함께 움직이는 실천 자원으로 자리 잡아 왔음을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또 다른 특징은 한글을 추상적 정신이나 역사적 유산으로만 다루지 않고, 실제 도시 디자인과 콘텐츠 생산의 재료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즉 이 총서는 훈민정음의 시대적 맥락부터 '추상도시 세종'의 개념, 한글 정책 실천, 도시브랜드 디자인, 한글 문헌 기반 콘텐츠 구상까지를 함께 다루었으며, 또한 본문 사이사이에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코너를 두어 지역 작가들의 작품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읽는' 총서에 '보는' 경험을 더하고 있다. 이는 한글을 문자와 역사유산에만 가두지 않고, 도시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소재이자 미적 매체로 확장하려는 편집 방향을 잘 보여준다.

더 나아가 이 총서는 세종시 안에 실제로 존재하는 한글 문헌 자료를 조사하고, 이를 향후 콘텐츠 개발의 기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고 있다. 책에서는 세종시에 소재한 박물관과 도서관 등에 한글 콘텐츠 개발에 활용할 만한 한글 문헌 자료들이 상당수 있으며, 아직 공식 목록이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정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앞선 총서들이 사람과 장소의 숨겨진 이야기를 발굴했다면, 이번 총서는 문헌과 디자인, 정책과 예술을 묶어 한글이라는 상징 자원을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축적하려 했음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는 세종학총서의 세 번째 권으로서, 세종의 상징 자원을 미래 비전의 언어로 전환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총서가 사람을 통해 세종의 깊은 시간을 복원했고, 두 번째 총서가 기차역과 생활의 서사를 통해 세종의 공간적 결을 드러냈다면, 세 번째 총서는 한글을 통해 세종이 앞으로 어떤 상징과 비전으로 자신을 설명할 수 있을지를 묻는다. 그런 점에서 이 총서는 과거의 발굴에서 현재의 해석을 거쳐 미래의 기획으로 나아가는 세종학총서의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전환점이며, 세종지역학 LAB이 연구 대상을 축적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시의 방향과 상상력을 설계하는 단계로 들어섰음을 보여주는 성과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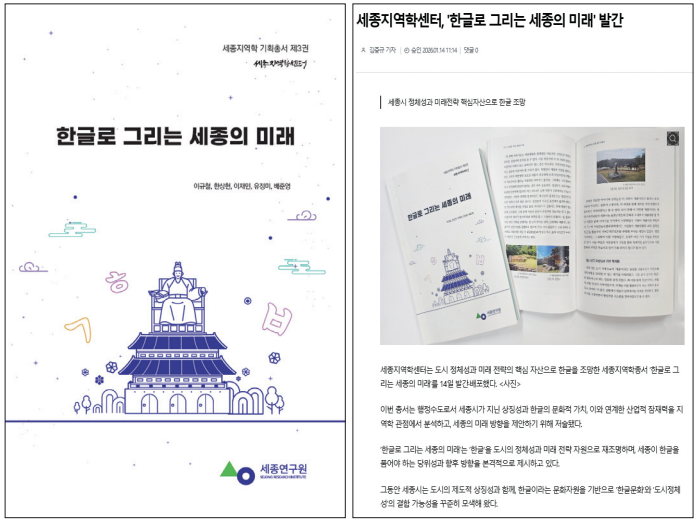


그림 15. 세종지역학센터 기획총서 제3권『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표지(左), 발간 기사(右)

▸ 기획총서 제3권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목차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Ⅰ. 훈민정음과 세종의 시대 — 이규철
①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금정희
Ⅱ. 한글의 추상, 추상도시 세종 — 한상헌
②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유경자
Ⅲ. '한글'이라는 옷을 입은 세종시 — 이재민
③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김순자
Ⅳ. 세종시 도시브랜드 디자인 전략의 방향성 탐구 — 유정미
④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김도영
Ⅴ. 한글 문헌을 활용한 세종시 한글 콘텐츠 구현 방안 — 배준영
⑤ 한글로 빚은 지역의 예술	이채론

▸ 우리의 총서가 가지는 가치와 의미

세종학총서는 세종이라는 도시를 해석하는 시선을 사람, 장소, 상징의 층위로 차례로 확장해 온 지식 자산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총서 『세종 인물여행』이 세종의 역사인물을 통해 이 도시의 깊은 시간과 문화적 계보를 복원하였다면, 두 번째 총서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는 기차역과 마을, 이동과 생활의 흔적을 따라 세종의 공간적 결을 드러내었고, 세 번째 총서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는 한글을 매개로 세종의 정체성과 도시브랜드, 문화정책과 콘텐츠의 가능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탐색하였다. 따라서 세종학총서의 흐름은 단순히 발간 권수가 늘어난 과정이 아니라, 세종을 '누가 살아온 공간인가'에서 '어떤 장소의 기억이 축적된 도시인가'를 거쳐 '앞으로 어떤 상징과 비전으로 자신을 설명할 것인가'로 질문을 심화해 온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들 총서는 책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포럼과 세미나, 영상 콘텐츠, 전시, 희곡, 점자책 등으로 다시 번역되며 연구 성과를 사회적으로 확장해 왔다는 점에서, 세종지역학 LAB의 축적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결과물이기도 하다.



그림 16. 세종학총서의 가치와 의미

3) 세종학세미나: 로컬과 함께하는 플랫폼

세종학세미나는 세종지역학 LAB의 연구 질문을 보다 유연하고 밀도 있게 다루는 장이다. 세종학포럼이 비교적 큰 규모의 공론장으로서 세종학의 방향과 핵심 의제를 사회적으로 확장하는 역할을 맡아 왔다면, 세종학세미나는 특정 주제와 현장을 중심으로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문제를 점검하고 실험하는 형식으로 발전해 왔다. 그런 점에서 세종학세미나는 세종지역학 LAB의 기동성과 현장성, 그리고 주제 실험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세미나는 초기에 세종학의 개념과 연구 기반을 점검하는 자리로 출발하였으나, 점차 인물 해석, 국가유산, 기차역과 지역문화, 조치원문화정원, 역사자원의 활용과 같은 보다 구체적이고 현장 밀착적인 주제를 다루는 방향으로 심화되어 왔다. 다시 말해 세종학세미나는 세종학의 문제의식을 소규모이지만 더 예민한 방식으로 다루며, 새로운 질문을 시험하고 현장의 반응을 확인한 뒤, 이를 다시 포럼과 총서의 의제로 환류시키는 유연한 연구의 장이라 할 수 있다.

▸ 2022년 세종학세미나 : 지역학 교육과 아카이브

2022년 세종학세미나는 세종학의 개념과 방향, 그리고 향후 연구 축적의 기반을 점검한 출발점이었다. 이 세미나는 지역학 교육을 통해 본 지역학의 가치와 의미, 지역문화아카이브와 지역학 사례, 그리고 '열 살 소년 세종시, 세종학의 여정과 미래'를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를 통해 세종학은 단순히 과거의 흔적을 정리하는 작업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교육, 기록, 시민소통과 연결해야 하는 종합적 지역학이라는 점이 분명하게 제시되었다.

특히 첫 번째 발표에서는 지역학이 정체성과 지역발전을 추구하는 종합학문이며, 연구와 교육을 통한 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또한 학생, 일반시민, 기업 종사자, 공무원 등 대상별로 교육을 확산할 필요성과 이를 뒷받침할 연구 강화의 중요성도 함께 제기되었다.

이는 세종학이 연구자 중심의 학술 활동에 머물지 않고, 시민 인식의 확산과 지역 이해의 심화를 위한 교육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공주학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역문화아카이브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자료의 수집과 기록관리체계 구축, 아카이브 서비스 제공, 시범적 콘텐츠 구성, 시민참여와 소통 중심의 사업이 소개되었고, 특히 시민기록운동가 양성, 시민 참여형 기증과 기록, 구술기록화 사업 등 참여형 아카이브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종학 역시 세종문화원, 교육청,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록과 연구, 시민 참여를 함께 묶는 구조를 고민해야 한다는 제언이 이어졌다. 이는 이후 세종학이 플랫폼 기능과 협력 체계를 강화해 가는 방향과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세 번째 발표에서는 세종학의 여정과 미래 비전이 직접적으로 다루어졌다. 여기서는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이후 세종학이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유입 시민들을 세종시민으로 통합하며, 궁극적으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학문적·정신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표가 제시되었다. 또한 2018년 조례 제정, 진흥위원회 활동, 포럼과 연계 프로그램 등 그간의 축적이 정리되면서, 세종학이 이제 개념적 논의에서 벗어나 보다 지속 가능한 연구와 사회적 확산의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는 과제가 분명히 드러났다.

이처럼 2022년 세종학세미나는 세종학이 무엇을 연구해야 하는가를 넘어서,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축적하고 누구와 공유할 것인가를 처음 본격적으로 점검한 자리였다. 지역학 교육, 시민참여형 아카이브, 세종학의 비전이라는 세 가지 주제가 한자리에 놓였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이후 세종학총서, 세종학포럼, 콘텐츠 확산, 협력 플랫폼으로 이어지는 세종지역학 LAB의 기초 설계도와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7. 제1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2년 세종학세미나 프로시딩

주제 1	· 지역학 교육을 통해 본 지역학의 가치와 의미 – 심재권 (나사렛대학교 글로벌비서학과 교수)
주제 2	· 지역문화아카이브와 지역학 사례 – 문경호 (공주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주제 3	· 열 살 소년 세종시, 세종학의 여정과 미래 – 이재민 (대전세종지역학연구센터 연구팀장)

▸ 2023년 세종학세미나 : 천 년 역사 인물로 조망하는 세종의 미래

2023년 세종학세미나는 『세종인물여행』 출간 직전에 총서의 구성과 내용, 인물 선정과 해석 방향을 점검하는 성격의 자리였다. 이와 관련하여 '천 년 역사 인물로 조망하는 세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일반시민과 집필진, 학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여하여 책의 방향성과 완성도를 검토하였다. 이날 논의의 초점은 역사 인물의 발굴 여부보다는, 어떤 기준으로 인물을 선정하고 이를 세종의 정체성과 어떻게 연결 지어 서술할 것인가에 맞추어졌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세종인물여행』에 수록된 인물을 톺아보았는데, 성삼문, 박팽년, 김종서처럼 잘 알려진 인물부터 세종시민이나 역사 전공자에게도 다소 낯선 인물까지 폭넓게 포함하였다. 동시에 세종시와 대전시의

지역정체성이 매우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역사적 인물을 가려 조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물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주제별 필진 안배가 충분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루어졌다. 이는 세미나가 단순한 성과 발표가 아니라, 출간을 앞둔 총서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다듬는 과정이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는 인물의 활동, 즉 이들의 문화적 실천이 세종의 지역정체성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어떤 인물은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되었고, 다른 경우에는 세종이라는 공간과의 연결을 너무 넓게 설정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아울러 세종을 단지 현재의 행정도시가 아니라 백제권과 연기군의 역사적 층위 속에서 함께 이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는 『세종인물여행』이 인물 소개에 머무르지 않고, 세종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과 맞물려 있었음을 보여준다.

결국 2023년 세종학세미나는 『세종인물여행』의 출간을 앞두고 원고의 방향과 해석 틀을 점검한 편집 검토의 장이자, 세종학이 인물을 통해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을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다시 확인한 자리였다. 그런 점에서 이 세미나는 독립된 연구 행사라기보다, 첫 번째 총서를 보다 완성도 있게 다듬고 세종학의 초기 서술 방식을 정교화하는 과정으로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림 18. 제2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3년 세종학세미나 프로시딩

배경설명	· 세종지역 인물 발굴과정 및 개괄 설명
	진행: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천 년 역사 인물로 조망하는 세종의 미래	
대담자 : 김민석 (충남대 교수), 노재명 (국악음반박물관 관장), 성봉수 (백수문학회 부회장), 신호림 (안동대 교수), 윤철원 (세종향토사연구소 부소장),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정제호 (한국교통대 교수)	
주제토론 1부	· 충절과 기개 : 선비정신과 세종시의 여민정신 – 김종서, 임성주 등 · 충무와 우국 : 애국지사의 발자취에서 찾는 세종시의 사명 – 이유태, 가네코 후미코 등 · 애향과 애민 : 기록과 역사를 중히 여기는 세종시의 지역 정서 – 김 휴, 맹의섭 등
	진행: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주제토론 2부	· 문학과 현실: 유구한 전통의 세종시 문학 – 윤조병, 백용운 등 · 음악과 미술: 화폭과 선율에 감도는 세종시의 풍류 – 김준현, 장욱진 등
	진행: 한상헌 (대전세종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열린 대화	· 외부인의 관점에서 본 세종인물 연구의 의의 – 신호림(안동대학교 교수) ·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대화
	진행: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2024년 봄 세미나 : 국가유산 정책 전환에 따른 세종시의 방향성 모색

2024년 봄 세미나는 세종학세미나가 보다 분명한 현장 중심 형식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된 자리였다. 이 세미나는 2024년 4월 25일 조치원문화정원 복합커뮤니티뜰에서 제1회 세종지역학 계절세미나로 개최되었으며, '세종에도 봄이 왔나 봄! 국가유산 정책 전환에 따른 세종시의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삼았다. 특히 이 시점은 기존의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던 국면과 맞물려 있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이 세미나는 단순한 시사적 주제 발표를 넘어, 세종시가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어떠한 관점과 언어로 다시 읽고 활용할 것인지 점검하는 전환의 장이었다.

이 세미나의 또 다른 의미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세종캠퍼스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 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2024년 4월 26일 해당 기관과 MOU를 체결하였고, 이는 국가유산 정책 전환이라는 제도 변화 속에서 세종의 역사문화자원을 보다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협력의 출발점이 되었다. 다시 말해 2024년 봄 세미나는 세종학의 흐름을 회고하는 자리에 그치지 않고,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응하는 연구 방향을 모색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기관과의 연계까지 가시화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같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장소 또한 많은 고심 끝에 선정하였다. 조치원문화정원은 과거 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생한 장소로, 세종의 역사와 현재를 잇는 대표적 현장 가운데 하나다. 그러한 공간에서 국가유산과 세종의 방향성을 논의했다는 점은, 세종학이 단순히 과거의 자원을 목록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실제 공간과 정책, 문화적 실천을 함께 엮어내는 현장형 연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2024년 봄 세미나는 세종학의 현장성과 정책성을 동시에 강화한 첫 계절세미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9. 제3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4년 세종학 봄 세미나 프로시딩

세종지역학센터 소개	· 세종지역학센터의 방향과 기대 –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MOU 체결	·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오늘의 이야기	· 국가유산 정책 전환에 따른 세종시의 방향성 모색 – 정상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 학원 원장)
열린대화	· 모두가 참여하는 열린 대화 – 이명우 (세종학진흥위원회 위원장) – 이정주 (두잉지프로젝트 대표) – 이 현 (창조경제혁신센터 주임) –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 장동우 (㈜PAL문화유산센터 대표) – 조성환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회장)

▸ 2024년 가을 세미나 :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발간 기념 북콘서트

2024년 가을 세미나는 세종지역학센터 기획총서 제2권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의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로 기획되었다. 이 행사는 2024년 9월 11일 조치원 어반라운지에서 열렸으며, 집필진과 예술가, 지역 전문가, 일반 시민 등 60여 명이 함께 참여하였다. 따라서 이 자리는 단순한 연구 발표회가 아니라, 세종학총서의 성과를 시민과 함께 나누고 책의 문제의식을 현장과 문화의 언어로 확장하는 공개적 기념행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이번 북콘서트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가 다루고 있는 세종의 기차역과 마을, 이동과 생활의 기억을 보다 입체적으로 경험하도록 구성되었다. 행사에서는 책자의 발간을 기념하고 소개하는 발언에 이어 전의역 독립운동 이야기를 풀어낸 한국창작무용, 저자와의 대화, 신문 기사 속 조치원역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낭독극, 청중과의 대화가 이어졌다. 이는 책의 내용을 단순히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몸과 목소

리, 감각과 현장을 통해 다시 경험하도록 하는 형식이었다는 점에서 북콘서트의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이 자리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세종의 여덟 기차역은 단순한 교통시설이 아니라 마을과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어 주는 플랫폼이며, 삶의 궤적이 녹아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의 발간을 기념하는 이번 북콘서트는 책 한 권의 출간을 축하하는 자리를 넘어, 세종의 공간적 기억과 생활의 서사를 시민과 함께 다시 읽는 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연구 성과를 총서로 축적한 이후, 그것을 북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 시민의 경험 속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조치원 어반라운지라는 장소의 선택 역시 상징적이었다. 어반라운지는 단순한 카페가 아니라, 조치원 원도심 안에서 사람들이 머물고 만나며 이야기를 나누는 '도심형 거실'의 성격을 지닌 공간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기차역과 마을, 이동과 생활의 기억을 다룬 총서의 문제의식을 가장 일상적인 방식으로 되돌려 놓는 선택이었다. 다시 말해 책이 다루는 조치원의 공간적 기억과 생활의 결이, 어반라운지라는 도심형 거실 안에서 시민의 대화와 경험으로 다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이 장소는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결국 2024년 가을 세미나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를 매개로 세종학총서의 성과를 시민과 공유한 북콘서트이자, 연구를 문화적 경험으로 재구성한 자리였다. 이 행사는 책의 내용을 창작무용과 낭독극, 대화의 형식으로 재현함으로써 세종시의 지역학이 단행본 발간에 머무르지 않고 예술과 현장, 시민의 경험으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행사는 세종지역학의 사회적 확산과 문화적 실천을 가장 잘 드러낸 대표적 사례 중 하나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0. 제4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4년 세종학 가을 세미나 프로시딩

인사말	–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 국장) –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 – 임창철 (세종문화원 원장)
총서 발간 과정	· 세종지역학센터 기획총서 제2권 『세종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를 기념하며 –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
한국창작무용	· 전의역 독립운동 이야기 〈나는 대한의 국민이다〉 – 박지원(원아트프로젝트 대표, 무용가)
저자와의 대화	– 김화미 (영남대 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 유용환 (산택인문연구소 소장) – 이재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센터장)
낭독극	· 〈신문기사 속 조치원역 이야기〉 – 최한솔 (연극연출가 겸 배우)
청중과의 대화	

▸ 2025년 봄 세미나 : ‘뜰’ 안에서 맞는 우리의 ‘봄’

2025년 봄 세미나는 세종지역학센터가 로컬콘텐츠 기업을 눈 여겨 보고, 처음으로 연계 활동했던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세미나는 2025년 2월 20일 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진행되었으며, 「조치원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이정주 대표)」와 「기억공간 터, 커넥트윗을 만나다(전소연 대표)」로 주제 발표를 구성하였다.

이 세미나의 중요한 의미는 세종지역학센터가 로컬 콘텐츠 주체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 첫 주자로 주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조치원문화정원이다. 조치원문화정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장소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콘텐츠와 경험을 실험하는 생활문화 거점이며, 지역민과 방문자, 창작자와 운영 주체가 교차하는 플랫폼의 성격을 지닌다. 세종지역학센터가 이 공간과 손을 맞잡았다는 것은 지역학의 성과를 연구실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실제 지역 안에서 작동하는 로컬 콘텐츠 생태계와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협력이 단순한 행사 운영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조치원문화정원을 중심으로 연결된 로컬 주체들은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장소성, 생활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적 경험과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실천 주체들이다. 커넥트윗 역시 조치원이라는 지역의 기억을 바탕으로 식문화와 체험, 공동체적 경험을 만들어내는 사례로 제시되었다. 다시 말해 세종지역학센터가 이들과 협력한 것은 지역학의 성과를 실제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 전략적 선택이자, 연구와 실천의 접점을 넓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25년 봄 세미나는 조치원문화정원을 첫 주자로 하여 로컬 콘텐츠 생태계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지역의 미래를 문화공간과 생활실천의 차원에서 함께 논의한 자리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는 세종학이 연구와 기록을 넘어 지역 안의 다양한 실천 주체와 연결되며, 공동체적 가치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만들어가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림 21. 제5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5년 세종학 봄 세미나 프로시딩

시작	· 인사말 – 이상호 (세종시 자치행정국 국장) – 김현미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 박영국 (세종시 문화관광재단 대표) – 임창철 (세종문화원 원장) – 임병호 (대전세종연구원 부원장)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 조치원문화정원 동영상 감상
	· 조치원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 – 이정주 (두잉지프로젝트 대표)
	· 기억공간 터, 커넥트윗을 만나다 – 전소연 (카페 커넥트윗 대표)
	· 조치원문화정원 시설 및 전시 투어 – 정원에 흐르는 시간의 흔적 전시공간 [샘]
	· 전문가의 눈으로 본 조치원문화정원 – 강경환 (영화제작소 눈 대표) – 이영락 (충북MBC 신성장전략국 국장) – 서자유 (대전세종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가 바라보는 조치원 문화정원 – 로컬크리에이터, 지역 예술가, 시민 등

▸ 2025년 가을 세미나 : 오래된 것들을 오늘날의 놀거리로!

2025년 가을 세미나는 세종학세미나가 지역의 역사자원을 오늘의 문화적 자산이자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전환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자리였다. 이 세미나는 2025년 8월 21일 침산추월에서 개최되었으며, 「오래된 것들을 오늘날의 놀거리로!」라는 제목 아래 역사자원과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행사는 세종시 주요 인사와 지역 전문가, 로컬크리에이터, 시민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었고, 고고학과 지역개발, 시민의 시선과 예술적 상상력을 한자리에서 교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세미나의 중요한 특징은 세종지역학센터가 로컬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점이다. 특히 ㈜PAL문화유산센터와의 연계는 역사자원을 단순히 보존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오늘의 문화적 경험과 지역개발, 교육과 콘텐츠로 확장할 수 있는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들이 단순한 이윤 추구형 사업체가 아니라,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유산의 보존·진흥, 공동 조사와 연구, 현장실습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 가치를 함께 만들어 가는 주체라는 사실이다. 그런 점에서 2025년 가을 세미나는 세종지역학센터가 로컬 콘텐츠 기업과 손을 맞잡고 지역학의 실천 범위를 넓혀 가는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볼 수 있다.

세미나의 내용 역시 이러한 문제의식을 분명히 보여준다. 행사에서는 ‘고고학을 가지고 노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소멸에 대처하는 자세: 역사자원을 통한 지역개발’, ‘전문가가 본 세종시의 역사자원과 활용방향’,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자원의 내일’과 같은 주제가 다루어졌다. 이는 역사자원을 과거의 유산으로 목록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의 도시가 어떻게 활용하고 해석할 것인가를 묻는 자리였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2025년 가을 세미나는 역사자원을 ‘남겨야 할 것’으로만 보지 않고, ‘다시 써야 할 것’, ‘함께 경험할 것’, ‘새로운 지역문화의 재료로 삼을 것’이라는 관점으로 확장한 자리였다.

이 세미나의 또 다른 의미는 전문가와 시민, 로컬 기업과 예술가가 함께 참여하는 다층적 구조에 있다. 프로그램은 학술 발표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눈으로 역사자원의 내일을 바라보는 순서를 별도로 두고 있었다. 이는 세종학이 더 이상 전문가만의 연구 영역이 아니라, 시민의 감각과 지역사회의 경험 속에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자원 활용을 둘러싼 논의가 지역개발, 로컬 콘텐츠, 문화적 경험, 공동체적 가치와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이 세미나는 세종지역학이 점차 실천과 활용의 단계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결국 2025년 가을 세미나는 역사자원을 보존의 대상에서 활용의 자원으로, 연구의 대상에서 시민 경험의 재료로 전환하려는 시도가 집약된 자리였다. 특히 ㈜PAL문화유산센터와 같은 로컬 콘텐츠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학이 지역유산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잠재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런 점에서 이 세미나는 세종학이 축적과 해석의 단계를 넘어, 지역의 역사자원을 오늘의 문화와 산업, 교육과 공동체 속에서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실천적 연구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2. 제6회 세종학세미나 포스터(左), 현장사진(右)

▸ 2025년 세종학 가을 세미나 프로시딩

시작인사
세종시 주요 내빈
침산추월 이야기
윤철원 (세종문화원 부원장)
고고학을 가지고 노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
장동우 (㈜PAL문화유산센터 대표)
소멸에 대처하는 자세: 역사자원을 통한 지역개발
주성빈 (㈜PAL문화유산센터 디렉터)
전문가가 본 세종시의 역사자원과 활용방안
이규철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임재일 (사회문화예술연구소 오늘 소장), 권오상 (퍼즐랩 대표), 양화니 (핑크로더 대표)
시민의 눈으로 바라본 역사자원의 내일
지역 예술가, 로컬크리에이터, 학생, 시민 등

▸ 세종에서 '세미나'하는 것의 의미

이처럼 세종학세미나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흐름 속에서 세종지역학 LAB의 현장성과 실험성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연구의 장으로 기능해 왔다. 2022년 세미나가 지역학 교육과 아카이브, 세종학의 여정과 미래를 중심으로 세종학의 개념과 연구 기반을 점검하는 출발점이었다면, 2023년 세미나는 『세종인물여행』 출간을 앞두고 인물 선정과 해석 방향, 지역정체성과의 연결 방식을 점검하는 자리로서 총서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후 2024년 봄 세미나는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전환되는 시점에 맞추어 세종시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협력 기반을 마련한 자리였으며, 같은 해 가을 세미나는 『세종 기차역에 스며든 삶의 이야기』 발간을 기념하는 북콘서트로서 연구 성과를 시민의 대화와 예술적 경험 속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2025년 들어 세미나는 다시 한 걸음 나아가, 봄에는 조치원문화정원을 첫 주자로 하여 로컬 콘텐츠 주체와의 협력을 본격화하고 지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를 함께 모색하였으며, 가을에는 ㈜PAL문화유산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역사자원의 활용 가능성을 실천적 차원에서 논의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세종학세미나가 단순한 보조 행사가 아니라, 세종학의 문제의식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시험하고, 현장의 반응을 확인하며, 이를 다시 총서와 포럼, 콘텐츠와 플랫폼으로 환류시키는 유연한 연구 장치였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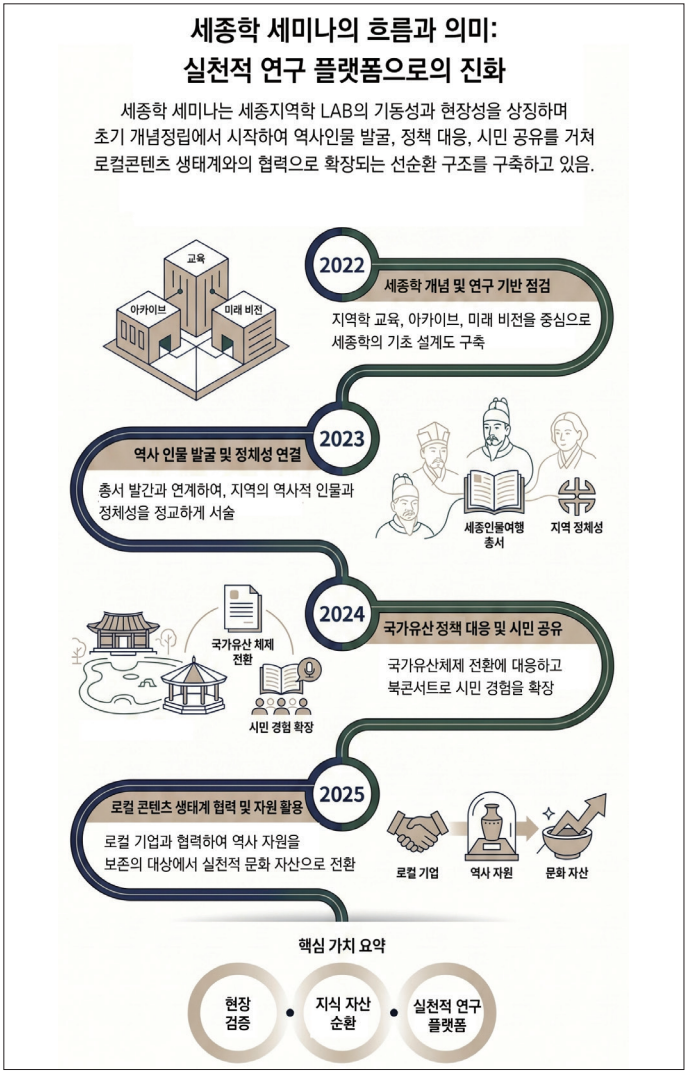


그림 23. 세종학세미나의 흐름과 의미

■ 조사·연구를 넘어서는 세종학 LAB

세종지역학 LAB은 세종이라는 도시를 둘러싼 질문을 발굴하고, 이를 포럼과 총서, 세미나를 통해 축적해 온 세종지역학센터의 핵심 연구 엔진이라 할 수 있다. 세종학포럼이 세종의 정체성과 미래를 둘러싼 핵심 의제를 사회적 공론으로 확장하는 장이었다면, 세종학총서는 그 질문을 사람, 장소, 상징의 층위에서 지식 자산으로 정리하고 축적하는 장치였고, 세종학세미나는 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주제를 점검하고 현장과 실천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유연한 연구의 장으로 기능하였다. 다시 말해 세종지역학 LAB은 질문을 만들고, 이를 사회적으로 나누며, 다시 연구 성과로 남기고, 또 현장에서 검증하는 순환 구조를 형성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축적의 과정 속에서 세종학은 단순한 지역 연구를 넘어, 세종이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할 것인지에 관한 언어를 만들어 온 셈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 LAB은 세종지역학센터의 첫 번째 엔진이자, 이후 콘텐츠와 플랫폼 기능을 가능하게 하는 출발점으로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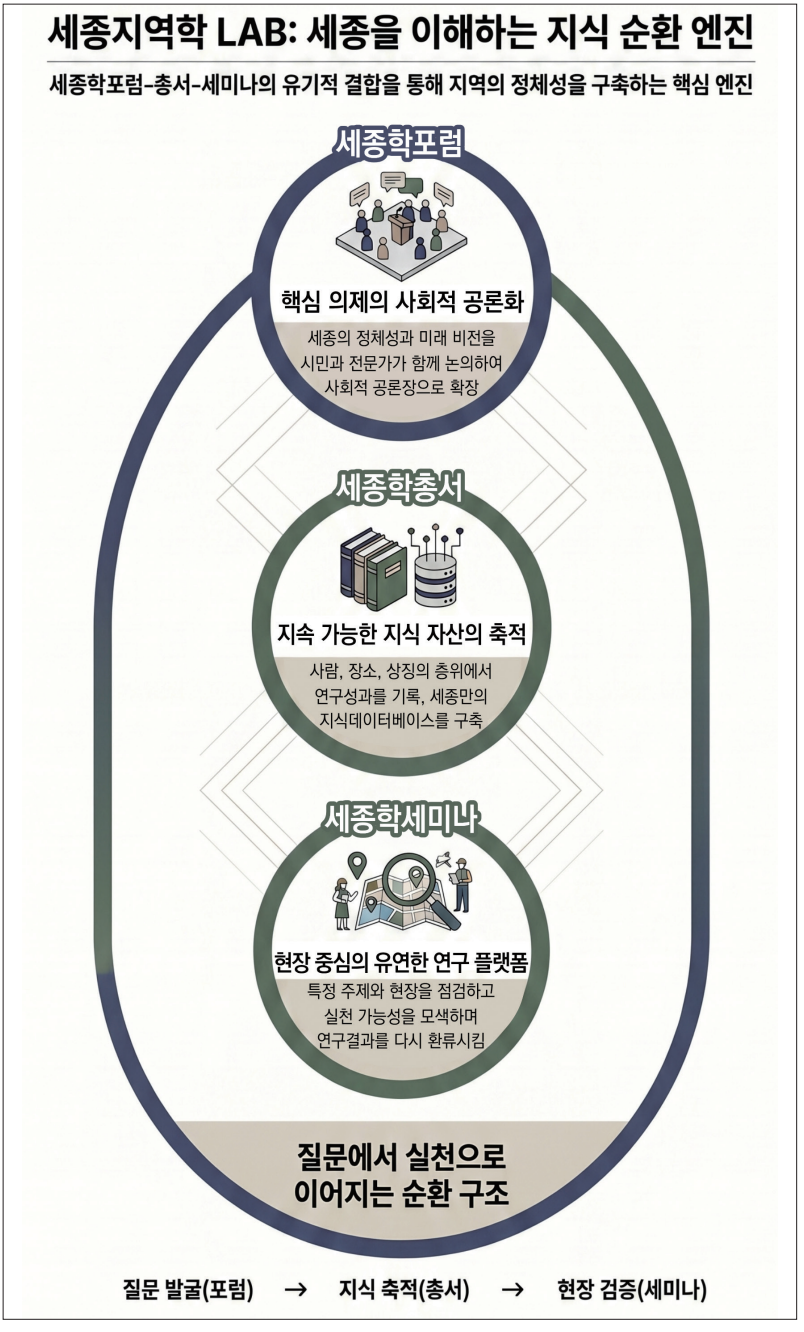


그림 24. 세종지역학 LAB의 역할과 구성

2. 센터와 시민을 잇는, 세종지역학 Contents

세종지역학 Contents는 세종지역학센터가 축적한 연구 성과를 시민이 이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언어와 형식으로 전환하는 기능이다. 지역학의 성과는 보고서와 총서에 머무를 때보다, 시민의 일상과 교육, 미디어와 문화예술의 장 속으로 번역될 때 비로소 살아 움직이는 자산이 된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 Contents는 단순한 홍보 수단이 아니라, 세종학의 사회적 확산과 공공적 환원을 실현하는 핵심 장치라 할 수 있다.

세종지역학 Contents의 특징은 연구 성과를 쉽게 풀어내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학이 발굴한 인물과 장소, 한글과 문화자원에 관한 축적을 영상 콘텐츠, 교육 교재, 현장 연계 프로그램, 뉴스레터 등 다양한 매체로 다시 배열해 시민의 경험 속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 Contents는 LAB에서 생산된 질문과 결과를 사회적 언어로 전환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공유 가능한 형태로 확장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우리 센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흐름으로 정리하였다. 첫째, 『세종인물여행』을 기반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처럼 연구 성과를 디지털 미디어로 전환한 사례, 둘째, 「INSIDE-OUT」과 「세종 네컷」을 통해 지역의 현재와 센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한 사례, 셋째,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 이야기」와 『세종시 바로 알기』처럼 세종학을 교육의 언어로 번역한 사례이다.

1) 『세종인물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

『세종인물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은 세종지역학센터가 축적한 연구 성과를 디지털 미디어의 언어로 전환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세종지역학센터는 2022년 발간한 『세종인물여행』을 바탕으로, 세종시의 역사 인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세종FM과 연계하여 영상 콘텐츠 제작을 진행하였다. 이는 단행본으로 정리된 연구 성과를 보다 친숙하고 접근

하기 쉬운 매체로 재구성함으로써, 시민이 세종의 역사와 인물을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 사업의 출발점은 『세종인물여행』이 단지 인물 정보를 정리한 책이 아니라, 신도시 이미지가 강한 세종에 깊은 역사적 층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드러낸 연구 성과라는 데 있다. 이 총서는 현재의 세종시에서 출생·활동했거나 세종지역과 연관이 있는 역사인물 40명을 8개 분야로 나누어 고찰한 작업으로, 세종의 역사적 인물을 발굴함으로써 지역사에 기반한 문화콘텐츠의 소재를 확보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다시 말해 이 영상 콘텐츠 제작은 총서의 연구 성과를 단순히 요약하거나 홍보하는 수준이 아니라, 세종의 역사적 인물을 매개로 지역의 시간성과 정체성을 보다 대중적인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영상 콘텐츠 제작은 세종학의 연구 성과를 시민의 일상적 미디어 환경 속으로 끌어들인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계획에 따르면 제작된 영상은 세종FM, 세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유튜브 채널 등에 업로드되고, 교육청 보급도 함께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는 연구 성과가 책과 보고서 안에 머무르지 않고, 온라인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보다 넓은 시민층과 학생들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경로를 확장한 것이다. 또한 2025년 활동 정리 자료에서도 『세종인물여행』 영상 제작은 세종지역학 Contents의 대표 사업으로 제시되며, 40명의 인물 가운데 20명을 우선 작업하는 방식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 사업의 또 다른 의미는 연구 성과가 단순히 '읽는 콘텐츠'에서 '보는 콘텐츠'로 전환되었다는 데 있다. 역사인물에 대한 연구는 자칫 일부 독자층에 국한된 텍스트로 남기 쉽지만, 짧은 영상 형식은 인물의 삶과 업적, 지역과의 연관성을 보다 압축적이고 직관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이는 세종시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이고, 세종의 역사인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넓히는 데에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계획서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의 역사인물을 매개로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세종시의 지역정체성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영상 콘텐츠 제작은 세종학의 공공적 확산을 위한 전략적 번역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세종인물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은 세종지역학센터가 연구 성과를 디지털 미디어의 언어로 확장한 사례이자, 세종학을 보다 친숙하고 일상적인 방식으로 시민에게 전달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세종학의 축적이 책의 발간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영상과 교육, 시민 소통의 형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세종지역학 Contents의 성격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림 25. 『세종인물여행』 영상콘텐츠

2) 지역학 뉴스레터, 『세종 네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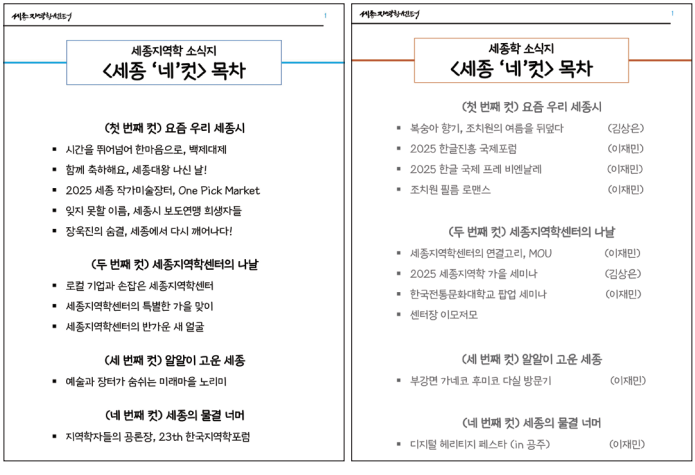
세종지역학 Contents의 두 번째 흐름은 소식지를 통해 세종의 현재와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한 데 있다. 세종학의 성과가 총서나 포럼, 세미나에만 머무를 경우 시민이 일상적으로 접하기에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소식지는 지역의 현재적 이슈와 센터의 활동, 세종의 장소와 사람, 바깥 지역의 흐름까지 함께 엮어 전달하는 비교적 가벼운 형식의 기록 매체로 기능하였다. 2024년에는 「INSIDE-OUT」이 발간되었고, 2025년에는 그 흐름이 「세종 네컷」으로 이어지며 정기적 기록과 공유의 채널로 자리 잡았다.

이들 소식지의 특징은 단순한 행사 홍보물이 아니라는 점이다. 「INSIDE-OUT」과 「세종 네컷」은 세종지역학센터의 사업 소식만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세종시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변화와 지역자원, 장소의 의미, 지역 밖의 관련 흐름까지 함께 다루었다. 예컨대 「세종 네컷」은 '요즘 우리 세종시',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알알이 고운 세종', '세종의 물결 너머'와 같은 구성 아래 지역 현안과 문화행사, 센터의 활동,

세종의 숨은 장소와 인물, 타 지역의 참고 사례를 함께 실었다. 이는 세종학의 연구 성과를 딱딱한 정보가 아니라 읽기 쉬운 생활형 콘텐츠로 다시 배열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소식지는 세종지역학센터의 축적을 연속적인 흐름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024년 「INSIDE-OUT」은 세종지역학협의체 '다모임' 결성과 가을 세미나 소식 등을 담으며 센터의 초기 플랫폼 형성을 기록하였고, 2025년의 소식지들은 봄 세미나, 로컬 주체와의 협력, 가을 세미나, 포럼, 총서 발간, MOU 체결 등 세종학의 주요 활동을 분기별로 정리해 나갔다. 다시 말해 소식지는 세종학의 결과를 사후적으로 요약하는 자료가 아니라, 연구와 실천의 과정을 현재진행형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는 장치로 기능하였다.

그런 점에서 「INSIDE-OUT」과 「세종 네컷」은 세종학을 시민의 일상적 독서 경험 안으로 들여온 매체라고 할 수 있다. 총서가 깊이 있는 축적이라면, 소식지는 빠르고 유연한 기록이며, 포럼과 세미나가 특정 시점의 공론장이라면 소식지는 그 사이를 잇는 생활형 콘텐츠였다. 결국 이들 소식지는 세종학의 성과를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자주, 보다 친숙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든 기록이자 공유의 플랫폼으로 평가할 수 있다.


세종지역학센터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시간을 뛰어넘어 한마음으로, 백제대제
- 함께 축하해요, 세종대왕 나신 날!
- 2025 세종 작가미술장터, One Pick Market
- 잊지 못할 이름, 세종시 보도연맹 희생자들
- 장욱진의 숨결, 세종에서 다시 깨어나다!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로컬 기업과 손잡은 세종지역학센터
- 세종지역학센터의 특별한 가을 맞이
- 세종지역학센터의 반가운 새 얼굴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예술과 장터가 숨쉬는 미래마을 노리미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지역학자들의 공론장, 23th 한국지역학포럼

세종지역학센터

세종학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첫 번째 컷) 요즘 우리 세종시
- 복숭아 향기, 조치원의 여름을 뒤덮다 (김상은)
- 2025 한글진흥 국제포럼 (이재민)
- 2025 한글 국제 프레 비엔날레 (이재민)
- 조치원 필름 로맨스 (이재민)

(두 번째 컷) 세종지역학센터의 나날
-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MOU (이재민)
- 2025 세종지역학 가을 세미나 (김상은)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합업 세미나 (이재민)
- 센터장 이모저모

(세 번째 컷) 알알이 고운 세종
- 부강면 가네코 후미코 다실 방문기 (이재민)

(네 번째 컷) 세종의 물결 너머
- 디지털 헤리티지 페스타 (in 공주) (이재민)

그림 26. 소식지 '세종 네컷' 목차

3)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이야기

세종지역학 Contents의 세 번째 흐름은 세종학의 연구 성과를 교육의 언어로 확장한 데 있다.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 이야기」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인문도시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추진한 프로그램으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과와 세종지역학센터가 연계하여 운영되었다. 이 사업은 세종지역 학생들의 애향심과 지역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진행되었으며, 세종학이 연구자 내부의 의제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 현장과 교육 프로그램 속으로 접점을 넓혀 갈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세종지역학센터는 전체 사업을 주도하기보다는 지역학의 관점에서 연계와 협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세종학의 성과가 교육 현장 안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함께 넓혀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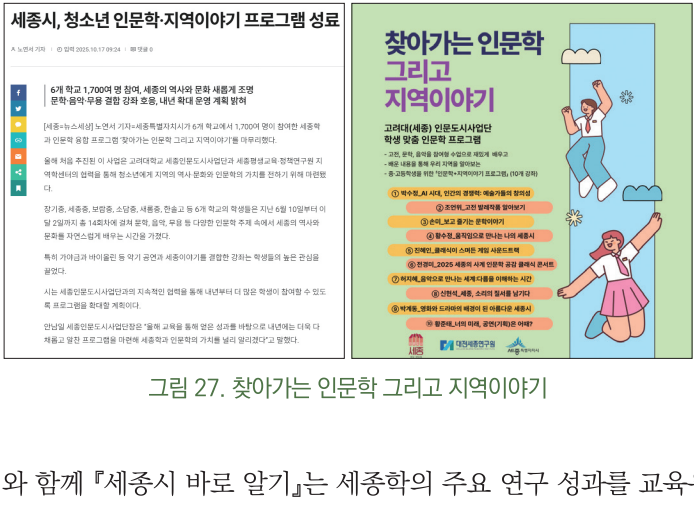


그림 27.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이야기

이와 함께 『세종시 바로 알기』는 세종학의 주요 연구 성과를 교육용 자료로 정리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교재는 세종학의 개념과 필요성, 세종시의 탄생과 오늘, 인물, 유산, 문화예술, 한글문화도시의 미래 등을 아우르며, 세종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이는 세종학이 단지 연구 보고서나 총서에 머무르지 않고, 학생과 시민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자료로 번역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 점에서 이

두 사례는 세종학의 성과가 교육의 장으로 확장되고, 지역사회 안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공유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 지역과 시민과의 만남, 세종지역학 Contents

결국 세종지역학 Contents는 세종지역학센터가 축적한 연구 성과를 시민의 언어와 경험으로 번역해 온 두 번째 엔진이라 할 수 있다. 『세종인물여행』 영상 콘텐츠 제작이 총서의 성과를 디지털 미디어로 확장한 사례였다면, 「INSIDE-OUT」과 「세종 네컷」은 세종의 현재와 세종학의 흐름을 생활형 콘텐츠로 기록하고 공유한 사례였고,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 이야기」와 『세종시 바로 알기』는 세종학을 교육의 언어로 풀어낸 사례였다.

다시 말해 세종지역학 Contents는 LAB에서 생산된 질문과 성과를 영상, 교육, 기록의 형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세종학이 시민의 일상 속에서 다시 읽히고 경험될 수 있는 경로를 만들어 왔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 Contents는 세종학의 대중적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연구 성과의 공공적 환원과 사회적 확산을 실현해 온 핵심 장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28. 세종지역학 CONTENTS의 역할과 구성

3.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Platform

세종지역학 Platform은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구와 콘텐츠 활동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나지 않도록, 이를 연결하고 축적하는 기반 체계이다. 지역학은 좋은 연구 성과를 생산하는 것만으로 지속되기 어렵다. 연구 성과를 함께 나눌 기관과 사람, 이를 운영하고 자문할 구조, 기록을 남기고 다시 확산할 채널이 함께 마련될 때 비로소 지역학은 지역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장이 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 Platform은 세종지역학센터의 세 번째 엔진이자, 앞선 두 엔진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하부 구조라 할 수 있다.

특히 세종지역학센터의 Platform 기능은 2024년 분리 개소 이후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하였다. 지역학협의체 '다모임'의 결성,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 간 업무협약 등은 모두 세종학의 축적을 연구자 내부의 성과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지역 안팎의 다양한 주체와 연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세종학이 단순한 연구 과제가 아니라, 여러 기관과 시민, 예술가와 실천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절은 크게 두 가지 흐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세종학협의체 '다모임'과 운영위원회처럼 지역 안의 협력 구조를 형성한 사례이고, 둘째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캠퍼스, 조치원문화정원, PAL문화유산센터, 세종점자도서관, 세종RISE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외연을 넓힌 사례이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세종지역학 Platform은 세종학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연결의 기반으로 자리 잡아 왔다.

1) 세종지역학협의체, '다모임'과 '운영위원회'

세종학협의체 '다모임'은 세종지역학센터의 플랫폼 기능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세종학이 단일 연구기관의 과업에 머무르지 않

고 지역 안의 여러 기관과 실천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장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사업 방향을 조율할 수 있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다모임'은 세종학의 성과를 개별 사업 단위에 흩어 두지 않고, 지역 안의 다양한 기관과 연결하는 첫 제도적 장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모임'은 2024년 8월 21일 대전세종연구원 세종연구실에서 결성과 착수회의를 열며 본격적으로 출범하였다. 이 자리에는 세종문화원, 세종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세종청년센터,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지원과, 세종지역학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하였다. 회의에서는 세종지역학센터의 여정과 흐름을 공유하고, 기관별 진행 사업과 향후 계획, 협의체 운영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는 세종학이 더 이상 특정 기관 내부의 연구 의제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의 문화·교육·산업·청년·균형발전 영역과 접속하는 공동의 기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다모임'의 의미는 참여 기관의 숫자보다 성격의 다양성에 있다. 문화원과 문화관광재단, 평생교육진흥원 같은 문화·교육 기관뿐 아니라, 테크노파크와 창조경제혁신센터, 청년센터, 균형발전지원센터까지 함께 참여했다는 사실은 세종학이 단순한 향토사나 학술 연구의 범주를 넘어, 지역의 정책과 산업, 청년과 생활, 문화와 교육을 연결하는 매개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다모임'은 세종학을 지역의 과거를 정리하는 작업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현재를 함께 읽고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협력의 틀로 전환시키는 계기였다.

운영위원회 역시 이러한 플랫폼 기능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장치였다. 2025년 자료에서는 세종학운영위원회가 지역학 유관기관과 예술가, 활동가로 구성되어 운영·관리·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로 제시되어 있다. 이는 세종학의 방향 설정과 사업 운영이 연구자 내부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않고,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 감각을 함께 반영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곧 운영위원회는 세종학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함께 붙잡아 주는 자문 구조이자, 세종지역학센터가 지역사회와 지속적으로 호흡할 수 있게 해 주는 완충 장치라고 할 수 있다.

결국 '다모임'과 운영위원회는 세종지역학 Platform이 지향하는 연결의 원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모임'이 지역 안의 여러 기관을 가로로 잇는 협력망이라면, 운영위원회는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세로축에 가깝다. 이 두 장치를 통해 세종학은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지역 안의 다양한 주체와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는 공동의 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그림 29. '다모임'과 '운영위원회'

2) 세종학 확산의 협력 네트워크, MOU

세종지역학센터의 플랫폼 기능은 지역 안팎의 기관과 맺은 업무협약과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더욱 구체화되었다. 세종학이 지속 가능한 지역학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연구 성과를 축적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를 함께 연구하고 활용하며 확산할 수 있는 협력 주체가 필요하고, 그 연결은 개별 행사나 일시적 접촉이 아니라 제도적 관계로 이어질 때 비로소 안정성을 갖는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센터가 구축해 온 업무협약과 협력 네트워크는 세종학의 외연을 넓히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플랫폼 장치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협력은 2024년부터 본격화되었다. 먼저 세종지역학센터는 2024년 4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세종캠퍼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국가유산과 문화유산 연구,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세종학이 단순히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해석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국가유산 체계 전환과 문화유산 활용이라는 보다 전문적인 영역과 접속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2024년 봄 세미나가 국가유산 정책 전환에 따른 세종시의 방향성을 주제로 열렸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이 협약은 세종학의 연구 의제를 제도적·전문적 협력으로 연결한 첫 사례로 볼 수 있다.

연말에는 대구경북학회와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세종학의 외부 네트워크가 지역 바깥으로 확장되었다. 2024년 12월 대구경북-세종 지역학 교류 협력 세미나는 양 지역의 연구 및 교육 협력, 지역학 현황 공유, 향후 과제 모색을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세종학은 세종 내부의 정체성 정립을 넘어 다른 지역학과 비교·교류하는 단계로 나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외부 협력은 세종학을 보다 넓은 지역학의 흐름 속에서 상대화하고, 동시에 세종학의 특수성과 과제를 더욱 분명히 인식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025년 들어 협력 네트워크는 한층 다변화되었다. 먼저 조치원문화정원과의 협력은 세종학이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과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했음을 보여준다. 조치원문화정원은 단순한 문화시설이 아니라, 지역의 기억과 장소성, 생활문화 실천이 겹쳐지는 공간으로서 세종지역학세미나와 북콘서트, 로컬 주체와의 연계가 집중된 현장이기도 했다. 여기에 ㈜PAL문화유산센터와의 협력이 더해지면서, 세종학은 지역유산의 보존과 보호, 공동 조사와 연구, 현장실습과 연계 프로그램 운영 등 보다 실천적인 문화유산 활용의 차원까지 외연을 넓히게 되었다. 특히 ㈜PAL문화유산센터와의 협약은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유산 진흥을 함께 목적으로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종학이 연구와 교육, 현장 활용을 함께 아우르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세종점자도서관과 세종RISE센터와의 협력은 세종학 플랫폼의 성격을 더욱 넓혀 준 사례이다. 세종점자도서관과의 협력은 세종학의 연구 성과가 더 많은 시민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접근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는 단순히 자료를 축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나 세종학의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적 환원의 관점을 강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세종RISE센터와의 협력은 지역정체성과 인재 양성, 평생교육의 흐름을 세종학과 연결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으며, 세종학이 문화와 역사의 영역을 넘어 지역발전과 인재정책의 언어와도 접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처럼 세종지역학센터의 업무협약과 협력 네트워크는 단순한 기관 간 우호 관계를 넘어, 세종학의 실행 기반을 확장하는 장치로 기능해 왔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캠퍼스와의 협력이 전문성과 교육을, 대구경북학회와의 교류가 외부 확장을, 조치원문화정원과 ㈜PAL문화유산센터와의 협력이 현장성과 실천을, 세종점자도서관과 세종RISE센터와의 협력이 공공성과 접근성을 각각 보완해 주는 구조였던 셈이다. 그런 점에서 이들 협력은 세종학이 연구기관 내부의 축적에 머무르지 않고, 다양한 주체와 함께 사회적 의미를 확장하는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0. 점자도서관, 세종RISE센터와의 MOU

■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Platform

결국 세종지역학 Platform은 세종학의 연구와 콘텐츠가 일회성 사업으로 소진되지 않도록, 사람과 기관, 기록과 실천을 연결해 온 세 번째 엔진이라 할 수 있다. 세종학협의체 '다모임'과 운영위원회가 지역 안의 여러 주체를 가로와 세로의 구조로 엮어 내는 협력 기반이었다면,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세종캠퍼스, 대구경북학회, 조치원문화정원, PAL문화유산센터, 세종점자도서관, 세종RISE센터 등과의 업무협약은 세종학의 외연을 전문성, 현장성, 공공성의 차원으로 넓히는 실행 기반이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세종지역학 Platform은 단순한 행정적 지원 체계가 아니라, 세종학이 지역사회 안에서 지속가능한 공공 자산으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관계의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LAB이 질문을 만들고 Contents가 그것을 시민의 언어로 번역한다면, Platform은 그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다음 단계의 연구와 실천으로 이어 주는 기반이다. 그런 점에서 세종지역학 Platform은 세종학을 개별 연구 성과의 집합이 아니라, 다양한 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공동의 장으로 성장하게 한 핵심 토대라고 평가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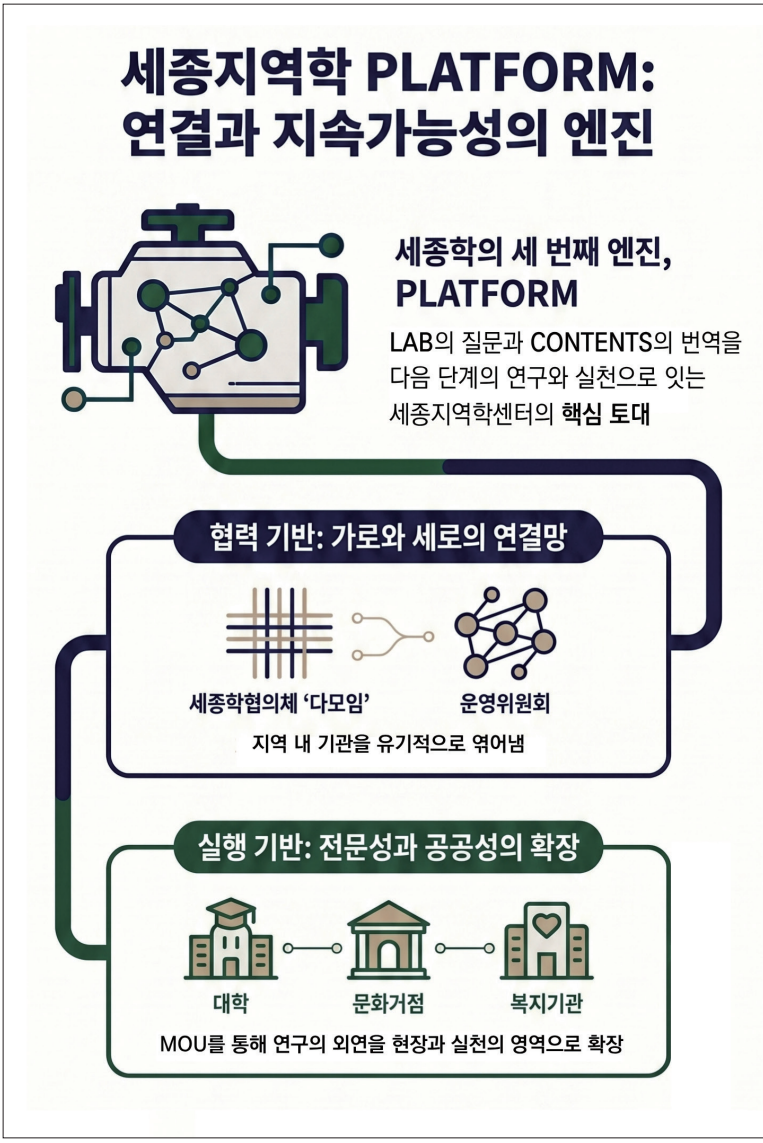


그림 31. 세종지역학 PLATFORM의 역할과 체계

III

센터 미래의 설계, 중장기 계획

1. 센터 미래 설계의 원칙
2. 센터의 미래, 비전과 목표
3. 세종지역학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4. 세종지역학센터 사업 추진 로드맵



센터 미래의 설계, 중장기 계획

1. 센터 미래 설계의 원칙

1) 중장기 계획의 접근 방향

세종시는 옛 연기군이라는 역사적 배경 위에 행정수도, 한글문화수도 등의 다양한 지역적 특성을 지닌 도시다. 이에 세종을 '지역'이라는 공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 시민이 가지는 지역에 대한 이해도와 애향심을 높이는 역할에 보다 집중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10여 년이 지난 지금, 세종대왕과 한글 등 초기 출범 취지와 합의된 상징들은 도시의 표상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기존 원지역과 새로운 창조도시의 개념이 입혀진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세종학'은 이제 새로운 실천 과제를 모색하고 지역학으로서의 뚜렷한 목표와 정체성을 확립해야 할 전환점에 놓여 있다.

따라서 본 중장기 계획은 향후 조직개편 등 대내외적으로 변화하는 여건을 반영하여 세종지역학센터의 새로운 기능과 역할을 규명하고자 한다. 나아가 보다 안정적인 조직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미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목적을 둔다.

2) 중장기 계획 수립 과정

본 중장기 계획은 기존의 기초적인 조사·연구 중심의 활동을 넘어 지

식경영을 통해 세종지역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견인하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창조적이면서도 세종시만의 독자적인 특성에 기반을 두고, 현재의 지역 정서와 미래 비전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성장 추진 전략을 수립할 것이다. 아울러 센터의 설립 취지와 그간 축적된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조직의 안정화와 지역학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기 및 장기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구체화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과 추진전략은 세종지역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식경영적 관점'을 도입하여 도출하였다. 세부적인 도출 과정과 핵심 방향성은 다음과 같다.

▌인문학적 접근

세종시 고유의 역사성과 정체성이 담긴 자원을 발굴하고, 이를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체계적인 지식으로 가공하여 보급한다. 이러한 인문학적 접근을 통해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고, 주민 간의 소통과 연대, 나아가 애향심을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지역학으로 인한 융합과 화합

지역학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세종학 역시 다양한 분과 학문 간의 학제적(inter-disciplinary) 교류를 바탕으로 지역의 특수성과 보편성을 총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도록 융합적으로 사고해야 한다.

▌생산적 지역학

지역자원에 대한 통합적 연구가 학문적 성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 사업으로 연계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인문학적 기술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2. 센터의 미래, 비전과 목표

1) 비전과 목표

(1) 세종학의 비전, '세종 지식경영의 실현'

세종지역학센터의 중장기 비전은 '세종 지식경영의 실현'이다. 이는 과거 세종대왕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 지식경영의 핵심 가치를 도출하여, 오늘날 세종학이 나아가야 할 실천적 이정표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지식경영'이란, 산재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시민에게 유용한 지식과 새로운 가치자원으로 가공하여 보급하는 인문학적 경영 방식을 뜻한다. 과거 세종대왕은 집현전을 중심으로 『고려사』, 『삼강행실도』, 『세종실록지리지』 등 방대한 편찬 사업을 주도하며 국가의 지식을 정리하고 분류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이처럼 학문과 실용을 연결했던 집현전의 지식경영 모델을 차용하여 센터의 새로운 가치관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방향성을 재정립하고자 한다.

이러한 비전 설정은 '도시 세종'의 출범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당위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세종학은 도시 세종의 시작과 탄생을 같이한다. 세종지역학이 도시 정체성을 확립해 가기 위해서는 출범한 취지와 더불어, 세종학의 명칭 자체가 도시 세종에서 비롯되었음을 주지해야 한다.[4] 그러나 직관적으로 세종을 표방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이 이루었던 가치와 세상을 세종지역학에서 차용해야 한다.

"전통성과 역사성 세종대왕의 업적을 융합한 창조적 도시"

도시 명칭 '세종' 명칭 선정의 배경 취지: 국민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된 결과, 도시의 미래를 담은 표상적 명칭, 세종대왕 자체를 표방하는 것이 아닌 세종이 이루고자 했던 것들을 지침 삼아 국내에서 처음으로 역사 인물을 도시 명칭으로 삼은 사례.

'세종(世宗, Sejong)'이라는 명칭은 조선시대 세종대왕을 기리는 도시 이름이면서 나라의 중심에 위치한 행정중심도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왕의 시호를 도시 명칭으로 사용하여 민족적 자존감을 형성한다는 점, 그리고 외국의 특별한 도시들이 인명을 사용하는 흐름을 따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배경은 세종시가 신도시로서 국가 중심의 행정도시라는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어 큰 장점을 지닌다.

(2) 센터의 핵심목표

세종 지식경영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세종지역학센터는 다음 세 가지 핵심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해 나간다.

▮ 세종의 지식경영을 표방하는 세종지역학

과거의 편찬 사업과 지식 체계화 방식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지역의 흩어진 자원들을 체계적인 지식 자원으로 가공하고 필요한 배경지식과 노하우(Know-how)를 축적한다.

▮ 한글경영을 선도하는 창조적 세종지역학

한글문화수도라는 도시 정체성에 걸맞게, 지역성에 기반하면서도 현재와 미래를 연결할 수 있는 창조적인 인문학 콘텐츠를 발굴하고 보급한다.

▮ 상생과 융합을 견인하는 플랫폼 세종지역학

조치원 및 옛 연기군 일대의 구도심과 새롭게 조성된 신도심 간의 공간적 조화, 그리고 기존 원주민과 새롭게 유입된 이주민 간의 정서적 공생을 도모한다. 궁극적으로 세종지역학이 세종시 내 모든 상생과 화합을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 실천적인 지역학 사업을 도출하고 추진한다.

2) 추진 전략

세종지역학센터 중장기 계획의 추진 전략은 2019년부터 축적해 온 학술적 성과를 분석하고 기존 연구의 효용성을 재점검하여 센터의 핵심 가치를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특히 평생교육 전문기관인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의 통합 운영이라는 조직개편 상황에서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으로서의 전문성을 유지하고, 더 나아가 연구 성과를 널리 전파할 수 있는 운영 방안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에 세종지역학은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는 총체적인 진흥 방법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LAB(연구·학술), Contents(시민·문화), Platform(연결·확장)이라는 기존의 3대 운영 전략을 발전시켜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세종지역학 운영 기반을 확립해 나가고자 한다.

(1) 세종지역학 LAB: 세종지역학의 가치 재정립

첫 번째 전략은 세종지역학의 지식 자산을 생성하고 학술적 깊이를 더하는 '세종지역학 LAB'의 가치 재정립이다. 이는 센터의 근본적인 연구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학의 단단한 뼈대를 세우는 과정이다. 전문가 집단이 주도하는 포럼과 학술 세미나를 통해 행정수도이자 계획도시인 세종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심층적으로 규명하고, 향후 지역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담론 생산의 장을 마련한다. 나아가 도출된 학술적 논의와 연구 결과들은 지식경영 총서사업과 같은 체계적인 발간 작업을 통해 센터의 지식 자산으로 축적될 것이며, 이를 동력 삼아 세종지역학의 학술적 권위와 전문성을 확고히 다져나가는 것이 본 전략의 핵심이다.

(2) 세종지역학 Contents: 시민 체감형 지역학 활성화

두 번째 전략은 축적된 학술 성과를 대중화하고 시민의 일상과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세종지역학 Contents'의 활성화이다. 세종학이 지역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시민 스스로 지역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의 조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일방향적인 지식 전달을 넘어 시민이 직접 지역의 역사와 생활상을 기록해 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세종시 특성에 맞춘 시민 교육과 '찾아가는 지역학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이 지역학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아울러 센터 소식지를 통한 지속적인 정보 공유와 세종 '시민의 날', '세종학 투어'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지역학이 시민의 일상 속 체감형 콘텐츠로 자리 잡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공동체의 애향심을 고취한다.

(3) 세종지역학 Platform: 대외교류의 허브(Hub) 완성

세 번째 전략은 국내외 유관기관 및 시민사회와의 융합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세종지역학 Platform'의 완성이다. 이는 단순한 기관 간의 협의체를 넘어, 국내외 유관기관 및 대중이 실질적으로 교류하고 융합하는 개방형 허브(Hub)를 조성하는 전략이다. 접근성을 높인 공감콘서트나 개방형 지식 공유 기반인 오픈 소스 프로젝트(Wiki)를 통해 지역학에 대한 시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대중적 인지도를 폭넓게 확장한다. 이와 동시에 전국 단위의 지역학 포럼을 개최하여 타 지역 연구기관과의 연계망을 마련하고, 세계 행정수도 및 계획도시들과의 글로벌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세종지역학의 위상과 외연을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시킬 것이다.

3)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

(1) 세종지역학 LAB: 세종지역학의 가치 재정립

① 전문가 포럼 개최

전문가 포럼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세종지역학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학문적 기반을 다지는 핵심 기제이다. 현재 세종학은 그 범위와 개념 정의,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한 끊임없는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세종학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단일 기관의 역량만으로 이끌어가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도시계획, 역사, 인문지리, 환경, 건축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기적인 '세종학 연구자 풀(Pool)'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종학의 방향을 설정하는 프레임(예: '계획도시로서의 세종' 등)을 제시하고, 세종시 정체성의 기반을 다지는 학술 프로젝트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포럼의 기획안 구성 단계부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세부 내용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매년 세종학을 상징하는 대표 학술 행사로 확립해 나간다.

표 1. 타 기관 연구소 포럼 운영 현황

연번	기관명	포럼명	운영기간
1	수원학연구센터	수원학 학술포럼	2003~
2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대회	2016~
3	서울연구원	서울정책포럼	2018~



그림 32. 제주학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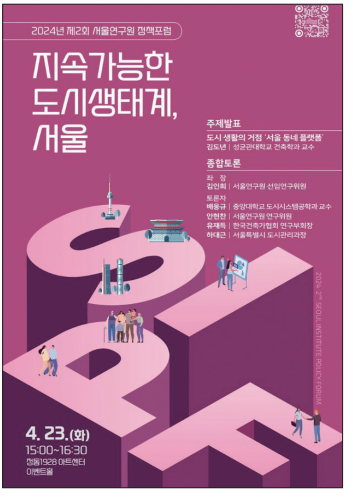


그림 33. 서울정책포럼

전문가 포럼의 경우 매년 큰 틀을 제시하되, 세종지역학센터의 핵심사업인 지식경영 총서 발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총서의 큰 틀은 '계획도시의 지역학 정립', '이주민 도시의 정체성', '세종의 역사 자원' 등으로 묶을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총서형 포럼 모델'을 구축하여 매년 공간 · 미래 · 생태 · 기억 등의 거시적인 구조에 맞추어 포럼을 개최한다.

타 지역의 지역학이 주로 역사, 문화유산, 인물 발굴에 중심을 두는 반면, 세종학은 계획도시이자 이주민의 도시이며 국가 발전의 상징성까지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총서 발간과 궤를 같이하면서도 세종학만의 상징성을 담아낸 주제로 포럼을 구성하여, 해당 연도에 세종지역학센터가 무엇을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로 삼을 것인지 대내외에 선언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포럼의 거시적 주제는 자연, 사회, 공간, 미래, 문화라는 5가지의 큰 틀로 결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되는 세부적인 아젠다는 '세종의 역사 미래, 금강', '계획도시의 지역학', '세종의 시민성', '금강의 역사적 층위', '이주민의 미래도시' 등으로 구체화하여 설정할 수 있다.

② 세종학 학술 세미나 개최

'세종학 학술 세미나'는 기존 '세종학세미나'를 심화·발전시킨 실질적 학술 교류의 장이다. 이론적 기반과 총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세종학의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 학문적 권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중심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지역학 담론을 지속해서 생산하는 연구 거점으로서의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특히 지식경영 총서 및 전문가 포럼과 궤를 같이하는 유기적 학술 프로세스로 개편하여 운영한다. 전문가 포럼이 세종지역학센터의 거시적인 핵심 의제를 대내외에 선언하는 자리라면, 연 1회 개최되는 학술 세미나는 총서 발간에 앞서 세부 주제를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실질적 사전 검토의 장이다. 이처럼 '전문가 포럼(아젠다 공론화), 학술 세미나(검

토 및 내용의 고도화), 지식경영 총서 발간(연구 성과 집대성)'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학술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연구의 완성도와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③ 지식경영 총서 작업

과거 백성 교육과 국가 운영의 기틀을 마련했던 세종대왕의 편찬 사업을 현대도시 세종에서 실현하되, 단발적인 주제 선정에 머물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지역학이 다루어야 할 필수 주제들을 선제적으로 기획하고 선점한다. 지식경영을 위한 총서의 연구 분야는 인물, 인문·지리, 역사, 사회, 문화, 문학, 예술, 정치, 경제, 건축, 자연환경(생태, 환경) 등 핵심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각 분야의 심층적인 자료 발굴과 융합 연구를 진행한다.

※ 세종의 편찬사업

백성 교육과 국가 운영의 기반을 마련한 대표적 사업 통합적 자료 발굴과 수집, 정리, 분류, 배열 등으로 분야별 지식을 집대성

→ 전방위적인 편찬사업은 학제간 융합사업과 비견될 수 있을 정도로 각 분야 정보가 망라되어 있음.

■ 추진과제

분야별 자료 발굴을 통한 총서 발간은 세종지역학센터의 설립 목적과 자원 축적 과정을 체계적으로 증명하는 핵심사업이자, 기관의 고유한 브랜드와 운영 정체성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는 척도이다. 지역학 연구소가 지역의 역사, 문화, 인물 등을 깊이 있게 연구하여 독자적인 전문성을 구축하듯, 세종학총서 발간 사업은 세종지역학센터가 어떠한 문제의식을 품고 세종시의 미래를 위해 무엇을 핵심 과제로 삼고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표 2. 타 지역학센터 총서 발간 주제와 분야

기관명	총서분야	제목	분야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학총서	제주 오현(五賢), 그 자취[影]와 울림[響]을 찾는 여정(旅程)	역사인물
		신흥리 해녀와 마을 이야기	인물
		강평국, 근대 제주를 짊어지다	여성(인물)
	제주역사 자료총서	승정원일기 제주기사 자료집(정조대)	역사
		제주의 입도조	역사
수원학 연구센터	수원학 구술총서	수원 월남민의 삶과 경험 경계를 넘어	근현대 인물
		고색동(수원시 대표 산업지대)	도시
		영통구 상전벽해의 여정	도시
		역주 장용영대절목	역사
강원학 연구센터	강원학총서	금강산과 강원도, 근대로의 초대	생태, 환경
		조선시대 강원도의 자연재해와 구제정책	역사
		외국인 선교사의 눈에 비친 강원지역	근현대
	강원학 지식총서	그림속으로 들어간 강원의 산수, 관동명승	지리
		이야기로 마시는 강원의 술	문화
		이야기로 만나는 강원의 사투리	문화
	강원학 자료총서	강원의 고지도	지리
서울학 연구소	(특화 사업) 강원의 얼 선양사업	1997년부터 추진해온 강원도 대표 문화사업, 강원의 인물을 발굴 향후 정비할수 있는 기초자료 차원의 체계적 조사 정리	인물
	연구총서	고구려도성제의 변천 등	역사
	교양총서	서울 근현대사 기행	역사
		서울문화유적 안내도	문화유산
		오늘도 한강은 흐르는데	문화
		북한산 답사	문화
	사료총서	일제하 서울의 공설시장편	사회
		총무처 정부기록 보존서	기록
		국내 대학도서관 및 박물관 안내	문화

기관명	총서분야	제목	분야
서울학 연구소	미디어총서	서울의 옛지도	지리
		그림으로 본 옛 서울 지도	지리
	번역총서	백년전 이태리 외교관이 본 한국과 한국인	근현대
	연구총서	청계천: 시간, 장소, 사람 - 20세기 서울 변천사연구	생태, 환경
		청량리의 공간과 일상	인문, 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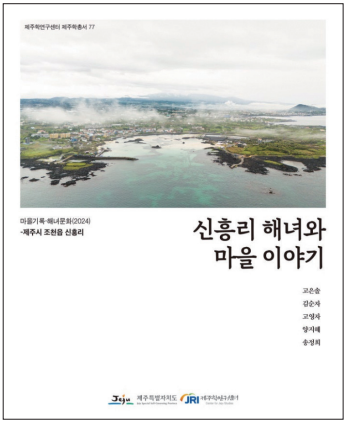


그림 34.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그림 35. 강원학 지식총서 발간과 연계한 시민 공모전



그림 36. 나주 영산강 인문학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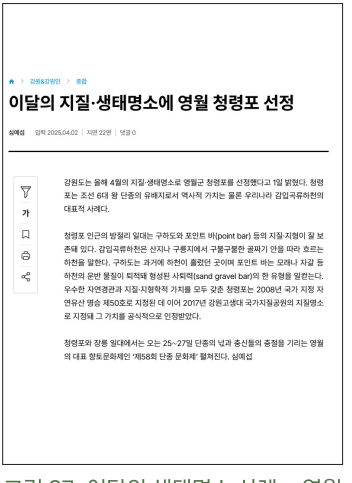


그림 37. 이달의 생태명소 사례 - 영월

■ 추진계획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의 과거와 현대를 아우르며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총서 및 연구보고서를 연간 1회 이상 발간할 필요가 있다. 총서는 세종학이 다루는 각 분야 내에서 특정한 핵심 주제에 주목하고, 기획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연구총서 4가지로 선명하게 갈래를 나누어 기획한다. 이러한 세분화 과정은 체계적인 자료 수집과 전문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하여 인문학으로서 지역학이 지녀야 할 학문적 위상을 높일 것이다. 아울러 총서 발간 전후로 해당 주제에 대한 세미나 및 워크숍을 병행하여 세종학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확장하고, 연구 성과의 공론화를 이끌어내어 사업의 실효성을 극대화한다.

표 3. 세종학총서 발간 계획(안)

분야	사업명	내용
인물	세종 인물 대전	기 발간한 인물 여행 40명에서 확대
	조선시대 세종 유람	조선시대 세종지역을 유람한 인물들의 시, 글들을 모은 전집
	세종의 얼 선양 사업 (특화사업)	세종의 얼을 상징하는 인물을 매년 선정하여 관련된 정보 조사 발간.
역사	세종 독립운동가와 후손	세종의 독립운동가 조사, 후손들 인터뷰
문화	한글에서 찾는 공존	지식의 공존과 관민 협력, 계층의 공존, 문화의 공존 등 주제로 한글 창제와 보급의 역사 밑받침이 된 공존의 사례 소개
도시	문화정원과 지역문화	국내외 문화정원 사례 조사
	골목길의 지역학	소규모 가게, 지역주민이 만들어낸 생태계를 조명
건축	조치원역의 근대건축	세종의 근대건조물 조사, 관련된 사건과 인물 스토리화
교육	세종의 사투리와 우리말	구수하고 푸근한 지역 고유의 말을 통해 문화 다양성 가치를 부각
	세종대왕과 연기군 사람들	세종대왕의 정책이 과거 세종시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켰을지 스토리텔링, 일러스트화
지역개발	세종시 신문으로 읽는 지역학	지역 언론이 기록한 도시 성장사 또는 지역신문에 등장한 세종특별시 출범 전후 변화를 신문으로 읽도록 주제 구분

분야	사업명	내용
예술	세종대왕과 융합예술 프로젝트 개발	포용, 공존, 실용, 민본 등을 현대예술과 융합할 수 있는 방안 기획서
마을 문화	노인의 기억	근현대 생활사 인터뷰, 구술책자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마을	내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세종의 마을 문화 자료 수집,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 결과물 수록
인문 지리	세종, 도시 이전의 공간 전월산	신도시 세종의 원지형이자 자연지리와 도시 형성사를 연결시킴. 금강 수계와 연계된 생태축으로서 과거 세종지역 생태와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왔던 과거 조명. (신앙의 산, 생활의 산, 도시 이전의 산 시리즈 제작)
	재구성된 지역, 원수산	세종시 이전과 이후, 도시 계획에 포함된 원수산의 변화와 상징
	신(新) 세종실록지리지	현대 도시 세종을 기준으로 옛 세종실록지리지 형태로 발간
	세종 로드 히스토리	역사시대~근대시대 길에 남은 지명, 이름, 사람들의 사연
생태 환경	세종 물길의 문명권	금강을 따라 이어진 선사시대~현재 세종의 시간을 따라가 인간의 문명을 주목 (선사인의 공간, 나루와 뱃길, 홍수와 치수, 강 주변의 민간신앙 등)
	금강의 네트워크	금강뱃길을 따라 이어졌던 인근 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종의 역할 재정립
	올해의 세종 명소	매년 역사 문화 자연 체험의 장이 될 만한 자연경관, 지형학적 가치를 갖춘 자연명소를 선정하여 인물, 자연, 민속 등 집중 소개
	농촌인문학	과거 연기 조치원의 생태환경이었던 농업, 자연, 강, 산의 재조명
종교	세종 순례길	삼국~근대시기까지 불교, 기독교, 천주교(공소) 등과 관련된 공간과 스토리 소개

특히, 세종학의 특화 총서사업으로 '세종의 얼 선양사업 기초 총서(가칭)' 발간을 제안한다. 이는 1997년부터 강원도가 추진해 온 인물 발굴 사업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과거 강원도는 영월 김삿갓, 평창 이효석, 강릉 신사임당 등 지역을 상징하는 분야별 인물들을 선별 및 조사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시관과 테마관을 조성함으로써 약 20년간 지속되었던 폐광 도시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문학과 역사의 명소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했다.

세종시 역시 세종대왕이라는 거대한 상징 외에도, 세종의 얼을 대변할 수 있는 애국인물, 역사인물, 문학인물 등 다방면의 역사적 인물들을 사전 조사하고 발굴해야 한다. 본 특화 총서는 이러한 인물 자원들을 축적하여 세종시의 새로운 문화적 도시 이미지를 가꾸어 나가는 데 필수적인 기초데이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연계사업으로서 '세종지역학 통신(가칭)'을 운영한다. 이는 총서 발간 시 해당 총서의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영상 콘텐츠를 병행 제작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제작된 영상은 센터 공식 유튜브 채널을 비롯하여 지자체의 공공 전광판 송출, 관계기관의 홍보 방송 등 다각적인 매체와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학 연구 성과를 시민들에게 보다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동시에 기관의 대내외 인지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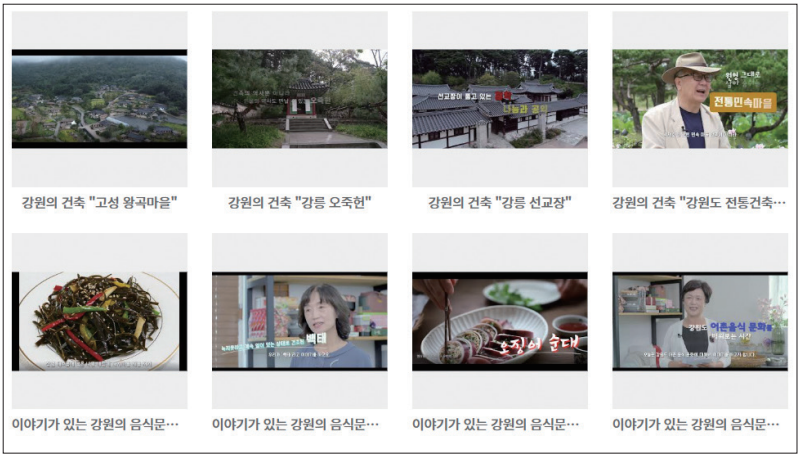


그림 38. 강원학 TV 사례, 총서 발간 주제와 연계된 영상 제작

④ 세종학 학술지 발간

세종학 연구자 풀(Pool)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세종학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타 지역학연구소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학술지 『세종학(가칭)』을 창간한다.

한국학미래진흥원 학술지 『전북학연구』의 사례처럼 투고자의 게재료를 면제하고,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하여 우수 논문 투고를 유인한다. 나아가 충북학연구소 학술지 『충북학』의 신진 연구자 발굴 및 지원 사업 모델을 벤치마킹하여 대학원 석사 2학기 이상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비 지원 및 맞춤형 멘토링을 제공함으로써 『세종학』의 지속적인 논문 투고를 유도하는 한편, 세종지역학을 이끌어갈 후속 세대를 양성한다.

아울러, 학술지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등재를 궁극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단계별 전략을 추진한다.

표 4. KCI 등재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

단계	목표(년도)	내용
1단계	기본 요건 충족 (2027-2030)	직전 3년간 매년 최소 1회 이상 『세종학』을 발간하여 실적 축적
2단계	등재후보학술지 진입 (2031)	축적된 실적을 바탕으로 신규평가 신청
3단계	등재학술지 승격 (2033)	등재후보 선정 2년 뒤, 최종적으로 정식 등재학술지로 승격

기존 지역학 학술지가 주로 지역의 역사 인물과 문화유산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세종학』은 계획도시이자 행정수도라는 세종시의 특성을 반영하여 역사·문화적 자산에 대한 연구와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서 세종시가 지닌 미래지향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아우르는 주제를 다룬다.

표 5. 『세종학』 투고 기획 주제(안)

분류	세부 기획 방향 및 주제
구 연기군 문화유산의 재조명	옛 연기군 지역의 역사적 인물 등 역사 문화유산 발굴
계획도시 세종의 도시 정체성	국가균형발전의 상징,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조성 및 진화 과정 고찰
이주민과 시민성 형성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공간적·정서적 상생, 통합 발전 담론 형성
로컬 자원의 디지털 아카이빙과 콘텐츠 창출	구축된 세종학 지식 데이터를 교육, 관광, 로컬 브랜딩에 접목하는 응용 방안 모색

세종지역학센터의 코어
세종지역학 LAB

- **지속 전문가 포럼**
  - 기존 '세종학 포럼' 고도화
  - 전문가의 시각으로 세종학 방향 설정의 프레임 제시
  - 지식경영 총서 발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 계획 도시의 지역학 정립, 이주민 도시의 정체성, 세종의 역사 자원 등

- **지속 세종학 학술 세미나**
  - 기존 '세종학 세미나' 고도화
  - 세종의 역사·문화·정책·도시 정체성 등을 심층적으로 다루는 전문적인 학술 세미나
  - 연구자, 전문가 중심의 학술 교류와 담론 생산 기능 강화

- **지속 지식경영 총서 작업**
  - 기존 '세종학 총서' 고도화
  - 세종지역학센터의 설립 목적과 자원 축적 과정을 증명하는 핵심사업
  - 기획총서, 연구총서, 교양총서, 자료총서 총 4가지 갈래
  - 총서 발간 전후 세미나 및 워크숍 병행
  - 연계사업 '세종지역학 통신' 병행: 영상콘텐츠 제작

- **신규 세종학 학술지**
  - 세종지역학 연구 성과 집대성 및 안정적인 전문 연구 생태계 조성
  -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신진 연구자 발굴에 목적
  - 계획도시, 이주민, 지식경영 등 세종시만의 차별화된 주제 발굴
  - KCI 등재를 목표로 한 단계별 진입 로드맵 추진

그림 39. 세종지역학 LAB의 중장기 계획

(2) 세종지역학 Contents: 시민 체감형 지역학 활성화

세종지역학센터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종학만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추고, 지역구성원과의 탄탄한 신뢰 관계를 형성하여 대중적인 인지도와 공감대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세종학의 학술적 연구 성과물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전체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세종학'의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종학의 정체성을 명확히 확립하고, 세종지역학센터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온전히 담아낸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브랜딩 전략을 통해 시민들의 마음속에 세종학의 진정한 가치를 깊이 인식시키고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함으로써, 세종지역학센터만의 강력한 '브랜드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① 세종지역학센터 소식지 발간(세종 네컷)

소식지는 세종지역학센터의 활동을 대내외에 지속해서 알리고, 시민과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가장 효과적인 소통 매체이다. 단편적인 홍보를 넘어 정기적으로 양질의 지역학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세종지역학센터가 확고한 학문적 기반을 갖춘 전문 연구기관이라는 대중적 신뢰와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다.

현재 발행 중인 소식지 '세종 네컷'은 주로 센터의 단발성 행사 위주 활동이나 세종시의 문화행사 소식을 소개하는 플랫폼 비중이 크다는 한계가 있다. 향후 개편될 소식지는 이러한 단순 행사 안내의 성격에서 벗어나, 센터가 나아갈 방향성을 담은 단위 사업별 추진 과정을 비롯하여 그 과정에서 도출되는 유의미한 연구 자료와 과제, 그리고 세종학의 핵심 가치들을 심도 있게 다루어 지역학의 역할을 확장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중장기 계획에 제시된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기존 소식지를 보완하고, 다루는 주제와 콘텐츠의 영역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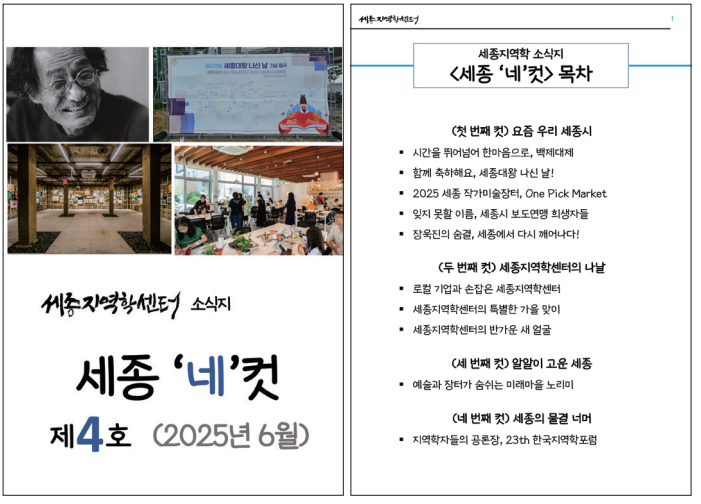


그림 40. 세종지역학 소식지 세종 네컷

또한, 개편된 소식지가 교육 및 세미나 등 센터가 주관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손쉬운 참여 창구가 되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독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작은 소규모 이벤트 등을 병행하여 대중의 관심도를 높이고, 지역학에 애정을 갖는 탄탄한 '팬덤층'을 점진적으로 형성해 나가는 세심한 전략도 필요하다. 더불어 소식지 발행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발간 시기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 4회 계간지의 형태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림 41. 공주학아카이브 이달의 소식지



그림 42. 제주학연구센터 기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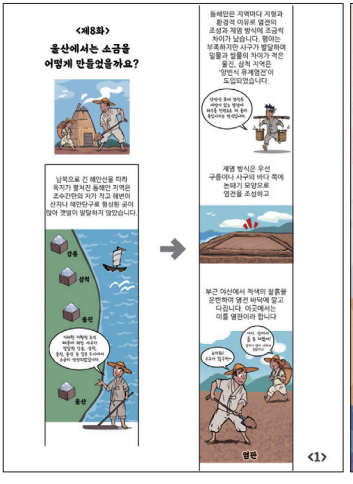


그림 43. 울산광역시남구문화원 웹툰



그림 44. 강원학연구센터 소식지

표 6. 타 기관 연구소 소식지 등 사례

기관	소식지명	구분	주제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수원이야기	온라인	- 누구나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수원이야기 - 한국전쟁 기억의 파편 - 수원 품종이야기
공주학아카이브 (공주학연구원)	이달의 자료	온라인	- 공주우체국 변천사 - 계룡산 산신제 등
울산 남구 지역학연구소	울산 소금 웹툰	온라인	- 우리는 소금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 울산에 수군이 주군하고 있었나요? 등
제주학 연구센터	제주바투리	온/ 오프라인	- 제주학연구센터에 바란다 - 제주학 연구기관 탐방 - 기획코너 글(제주도 전설의 멋 등) - 제주학 산책 - 제주학 연구센터 동향
강원학연구센터	강원학나래	온라인 (웹진)	- 가온메아리 - 릴레이토크 - 브리핑 - 인터뷰 등

현재 타 지역의 관련 기관 소식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대다수가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이유로 오프라인 인쇄물보다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소식지를 발행하는 추세이다. 비록 온라인 형태일지라도 비교적 체계적인 내용 구성과 완성도 높은 디자인, 그리고 다채로운 홍보 콘텐츠를 충실히 담아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그동안 소셜 미디어(SNS)를 최대한으로 활용하며 온라인 홍보 역량을 탄탄히 구축해 온 활동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타 지역의 선도적 사례와 우리 센터가 가진 기존의 디지털 활용 강점을 종합해 볼 때, 향후 개편되는 소식지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오프라인 발행 방식보다 온라인 기반으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②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시민 아키비스트란 전문 기록 관리자가 아닌 일반 시민이 주체가 되어 지역과 공동체의 소중한 기록을 직접 수집 및 정리,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제도이다. 세종시는 과거의 역사적 기반 위에 새롭게 조성된 도시로서, '새로운 도시가 어떻게 자기 기억을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상향식(Bottom-up) 시선에 주목해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스스로 지역을 기록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역량을 길러 주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현재 세종시는 새롭게 만들어진 다양한 정책과 시설들이 곳곳에 도입되며 미래 지향적인 특성에만 시선이 집중되고 있어 과거 지역이 품고 있던 '이전의 기억'들이 빠르게 소실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세종시의 진정한 정체성은 다름 아닌 '시민의 기억'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 고유의 언어와 방식으로 그 기억을 온전히 잡아둘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공무원이나 전문가들이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상위의 정책적 관점이나 도입 과정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선 속에서 지역의 과거와 변화상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과거 2017년 세종평생교육진흥원에서 아키비스트 양성과정을 개강하여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에는 기록에 대한 이론적 체계만을 가르치는 데 그쳤고, 수강 기간 또한 매우 짧아 실무적 역량 강화보다는 형식적인 교육에 머물렀던 아쉬운 부분이 존재한다. 이에 세종지역학센터는 해당 부분을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종시만의 독특한 도시 특성을 토대로 지역학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돕고, 나아가 지역을 실질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전문적인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 **과정명** : 지역학 기반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과정
- **목표** :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사를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해석·공유할 수 있는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 **대상** : 지역 주민, 청년·중장년, 마을활동가 등
- **운영 기간** : 12주(주 1회, 회당 2~3시간)
- **운영 방식** : 이론 40% + 실습 60%, 현장 중심·팀 프로젝트
- **교육 주제** : 시민에 의한 기록(지역학의 의미와 시민 아키비스트 개념 등), 내가 기억하는 우리 동네(기억을 이끌어 내는 방식, 구술에 대한 실습 체험) 등
- **연계 프로그램** : 청년기록단 운영 등

그림 45.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프로그램 기획(안)

표 7. 2017년 운영된 세종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과정

교육개요		
교육목적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과 학습자료를 기록물화하여 연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록과 조사활동을 지원하는 시민 리더 양성	
교육횟수	주 2회, 3주	
교육지원	수강료 무료	
사후활동	없음	
교육내용		
회차	제목	내용
1	기록, 기록관리	기록, 기록관리란, 기록관리의 중요성
2	기록을 관리하는 방법	기록관리 절차, 단계별 기록관리 방법 민간 기록 관리(나→가족→사회)
3	기록의 종류별 관리방법	종이 기록물, 전자기록물, 구술, 영상 등 시청각 기록, 종류별 기록의 관리방법
4	현장 기록화 전략 수집	기록화 목표 정하기, 기록화 대상 문서 기록화 전략 및 계획 수립
5	현장 기록화(실습)	기록화 대상 Recording, 현장멘토링, 기록화 결과물 제출
6	기록화 결과물 정리	기록화 결과물 케이스 스터디, 기록화 결과물 검색, 활용을 위한 기술 품평회

세종특별자치시 (2017) 재구성

③ 세종학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강화

세종지역학의 교육 방향은 세종대왕의 정신을 단순한 이념을 넘어 실천적인 '방법론'으로 가져오는 진취적인 기획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그동안의 운영 성과를 토대로 세종대왕의 핵심 가치인 백성(애민), 소통, 기록, 실용을 축으로 삼아, 세종시 지역학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 역량을 이미 충분히 구축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다만, 현재 센터의 규모와 향후 이루어질 조직강화 과정을 염두에 둔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무리한 직접 운영보다는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후원 역할에 집중하여 내실 있게 출발하고, 향후 안정적인 조직체계가 확고히 구축되는 시점에 프로그램의 직접 운영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타당하다.

예를 들어, 세종시(세종연구원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가 연계 운영한 「세종의 재발견」 프로그램은 네트워크 중심의 기획·지원 모델이 지닌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이를 참고하여 향후 지역학센터에서 외부 자원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며, 대학생과 시민이 지역을 생생하게 탐구하고 경험할 수 있는 연계형 교육 모델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세종지역학센터가 이미 다수의 유관기관 및 협회 등과 견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은 타 지역 연구소와 차별화되는 강점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활용함으로써, 세종시 지역학 교육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진정한 '허브(Hub)'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예시) 다모임: 세종문화원, 세종시문화관광재단,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세종테크노파크, 세종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세종청년센터, 세종시 국가균형발전센터, 세종시 교육지원과, 세종지역학센터

표 8. 세종학 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안)

구분	주제(예시)
찾아가는 지역학	세종시의 문화를 활용한 문화예술 체험
세종학 강의	오래된 역사와 만들어지는 역사
세종형 청년 아카데미	세종 청년 아카데미 청년, 지역의 서사를 만드는 힘
지역 맞춤 개념 알기	신도시와 원도심의 기억을 잇는 교육, 행정수도 이전의 역사, 어디에서 왔고, 무엇을 잃고, 무엇을 얻었는가? 등
도시 특성과 공공프로젝트	도시 읽기와 공공사업 이해
마을과 골목길 콘텐츠	생활사·공간 기록 실습 방법

※ 방향 : 세종은 '행정수도·신도시·이주도시'라는 특성이 겹쳐 있는, 한국에서 거의 유일한 도시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추진과제. 찾아가는 지역학 프로그램 운영

'찾아가는 지역학'은 기존의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 이야기'의 발전 형태로서 시민들이 센터나 특정 교육장으로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세종학 콘텐츠가 지역의 다양한 공간과 일상 속으로 투입되는 현장 밀착형 프로그램이다. 이는 세종학의 진입 장벽을 대폭 낮추고, 시민들이 보다 친숙하고 자연스럽게 세종의 역사와 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대중화 전략이다.

특히, 지역학을 경직된 텍스트나 이론 중심의 강의가 아닌 문화예술 활동과 결합하여 시민의 체감도를 높인다. 예컨대 지역 기반 예술가와 협업하여 세종시 전용 서체인 '세종글꽃체'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실습을 진행하거나, 세종의 역사적 인물과 장소에 얽힌 이야기를 소재로 그림을 그려보는 방식을 활용한다. 이러한 시도는 세종의 고유한 자산들을 시각적, 예술적 경험으로 치환함으로써 시민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시민 스스로 세종의 이야기를 창작하고 향유하는 능동적 주체로 거듭나게 한다. 이를 위해 지역 내 우수한 문화예술 작가 및 강사 풀(Pool)을 발굴하여 시범적

인 융합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이를 기존의 평생교육 거점 공간이나 시민대학 체계와 접목하여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 세종학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문화예술 활동으로 스며들게 하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④ 세종 '시민의 날' 운영

현재 세종시민의 날은 시 출범을 기념하는 7월 1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행정 중심의 관 주도적 성격이 강해, 시민들이 온전히 공감하고 세종시만의 고유한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 화합과 애향심 고취를 위해서는 세종시의 근간이 되는 세종대왕의 애민정신과 한글의 가치를 담아낼 수 있도록 시민의 날 지정 기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이나 한글날(10월 9일) 등을 기점으로 시민의 날을 재지정하는 방안은 세종학의 핵심 가치를 대중적으로 확산하는 상징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개편된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세종학 주간(가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세종학 주간은 단발적인 기념행사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학술·문화·교육 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펼쳐지는 기간이다. 해당 기간 동안 세종지역학센터를 중심으로 세종학 관련 프로그램(시민 토론회, 로컬 콘텐츠 미디어 전시 및 팝업 이벤트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세종학이 시민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축제의 장을 마련할 수 있다. 이는 센터가 구상하는 중장기 계획의 로드맵과 맞물려, 연구 성과를 대중에게 환원하고 세종시의 고유한 정체성을 더욱 견고히 다지는 핵심 과제로 기능할 것이다.

⑤ ‘세종학 투어’ 운영

‘세종학 주간’이 세종시의 역사와 문화를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시간적’ 맥락의 연장선이라면, ‘세종학 투어’는 세종시라는 물리적 환경을 직접 밟고 경험하는 ‘공간적’ 맥락의 탐방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이 수천 년의 역사가 담긴 유적지부터 새롭게 조성되는 현재의 공간까지 직접 대면하게 함으로써, 세종시의 공간적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한다.

표 9. 세종학 투어 프로그램(안)

구분	내용	비고
운영주기	연 5회 정례화	격월 운영: 2월, 4월, 6월, 8월, 10월
모집인원	20명	현장 답사의 집중도와 해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소규모 인원으로 제한하여 운영
탐방내용	세종시의 지리적 특성, 숨겨진 역사, 공간에 얽힌 인문학적 서사를 전문가의 해설과 함께 탐구	
수료증 발급	연간 통합 수료 방식	운영내용: 2월부터 10월까지 기획된 총 5회의 투어 과정을 모두 이수한 참가자에게만 연말에 종합 수료증(예: 세종시 공간 탐험가)을 발급하는 방식
		기대효과: 참가자들의 장기적이고 꾸준한 참여 유도 가능, 세종시 전역의 다양한 공간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회차별 개별 수료 방식	운영내용: 매회 투어가 종료될 때마다 해당 탐방 주제와 공간이 명시된 개별 수료증을 즉각적으로 발급
		기대효과: 시민들의 참여 진입 장벽을 낮춤, 개인의 관심사나 일정에 따라 유연하게 참여하도록 독려, 매회 즉각적인 성취감

센터와 시민을 잇는 콘텐츠
세종지역학 Contents

- **지속 세종지역학센터 소식지 발간**
  - 기존 세종학 뉴스레터 〈세종'네'컷〉 고도화
  - 계간지(3, 6, 9, 12월) 형태 유지
  - 주제와 콘텐츠 대폭 확대, 특히 센터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체계적으로 담아낼 수 있도록 보완
  - 독자의 흥미유발을 위한 소규모 이벤트 병행, 궁극적으로 지역학 '팬덤층' 형성에 기여

- **협업 세종학 시민 교육 프로그램 강화**
  - 세종은 '행정수도·신도시·이주도시'라는 특성이 겹쳐 있는 도시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함
  - **찾아가는 지역학 프로그램**
    기존 '찾아가는 인문학 그리고 지역이야기' 고도화
    '세종글꽃체'를 활용한 캘리그라피 실습같은 문화예술 활동 중심

- **신규 시민 아키비스트(시민연구단) 양성**
  - 지역의 역사·문화·생활사를 시민의 관점에서 기록·해석·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교육
  - 상위의 정책적 관점이나 도입 과정과는 별개로, 시민들의 일상적인 시선 속에서 지역의 과거와 변화상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함

- **신규 세종 '시민의 날' 운영**
  - 세종대왕 탄신일(5월 15일) 또는 한글날(10월 9일)으로 재지정 추진
  - '시민의 날' 전후 '세종학 주간(가칭)' 운영

- **신규 '세종학 투어' 운영**
  - 공간적 맥락의 세종시 탐방 프로그램
  - 지리와 역사, 인문학적 서사를 엮은 전문가 동행 답사

그림 46. 세종지역학 Contents의 중장기 계획

(3) 세종지역학 Platform: 대외교류의 허브(Hub) 완성

① 유관기관 MOU 및 협력세미나

MOU는 단순한 '형식적 협약'을 넘어서, 지역 내에서 지식과 사람, 그리고 자원이 실제로 움직이게 만드는 핵심 장치이다. 따라서 MOU로 연결된 기관과 단체들이 정기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성과를 창출하며 축적해 나가는 '공동 실행 구조'로 기능해야 한다. 단순히 일회성 협약식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협력 및 실행을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 구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협력 분야를 세분화하고 명확한 결과물을 도출함으로써 세종지역학센터의 대내외적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종시 내에 유관기관은 많으나, 이를 하나로 묶어내는 연결 구조는 다소 약한 실정이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람과 성과 중심의 네트워크를 견고하게 구축할 방안을 심도 있게 고민해야 한다. 단, 현재 세종지역학센터가 직면한 한정된 예산과 인력 규모를 현실적으로 감안할 때, 무리한 확장보다는 그동안 수행해 온 본연의 기능에 맞추어 기관과 기관을 잇는 플랫폼 역할에 집중하고 이를 지향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② 국내 지역학 연구의 거점 및 허브(Hub) 역할

■ 기본방향

세종지역학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행정도시 세종이 지닌 국가적·사회적 위상을 국내외로 확장한다. 이를 통해 지역학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세종학 본연의 진흥은 물론 국내외 모든 지역학 연구가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거시적인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연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지역학 연구기관은 대학 내 16개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연구원 내 21개소, 민간기관(문화원, 학회 등) 5개소 등 총 42개 기관 및 단체에서 추진되고 있었다. 최근에는 안성학, 무주학 등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지역학이 깊이 있게 다뤄지는 등, 전국의 지역학 활성화 운동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전국의 지역학 연구기관들은 공통적으로 '지역 정체성 확립'이라는 궁극적인 목표 아래 학술 활동, 연구 성과 출판, 시민 소통 프로그램 등을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선도적인 지역학 기관의 경우, 한 걸음 더 나아가 독자적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 사업의 확대 등 고도화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타 기관들과의 활발하고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선진 정보를 나누고 벤치마킹함으로써 세종지역학의 내실 있는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세종시가 지닌 행정중심도시로서의 고유한 역할과 세종의 지역정체성을 긴밀하게 연계해야 한다. 또한 전국 각지의 지역학이 세종이라는 공간에 모여 총체적인 '한국학'으로 융합되고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세종지역학센터가 명실상부한 국내 지역학의 교류 거점(Hub)이자 플랫폼 역할을 선도적으로 수행해 나가고자 한다.

■ 추진과제 1. 초광역 지역학 연계 포럼 개최

세종지역학센터가 국내 지역학 연구의 진정한 교류 거점이자 플랫폼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단일 행사 위주의 학술대회를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초광역 지역학 연계 포럼'으로 격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세종시가 주도하여 다양한 위계의 지역학포럼을 이끄는 전략은 센터의 대내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세종을 전국 지역학 융합의 중심지로 만드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포럼의 층위를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추진한다.

첫째, 전국적 규모의 연계이다. '5극 3특' 등 새롭게 재구성되는 지방자치 흐름에 발맞춰 전국 단위의 '한국지역학포럼'에 참여하고 이를 연계함으로써, 세종학의 담론을 국가적 차원의 공공 의제로 확장한다.

둘째, 충청권(신수도권) 규모의 선도이다.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을 아우르는 충청권 포럼을 선도적으로 구축 및 개최하여 지방 소멸 및 수도권 과밀화 극복이라는 공동의 시대적 과제를 세종시가 중심이 되어 이끌어간다.

셋째, 특화된 지역 간 융합 교류 포럼 추진이다. 임난수 장군의 탐라 정벌과 같은 역사적 맥락을 공유하는 제주학회와의 교류를 비롯하여, 충청권-경상권-경기권 등 타 권역 연구기관과의 융합 포럼을 기획해 세종학의 외연을 넓히고 상호 시너지를 창출한다.

이러한 다층적 포럼은 시민, 청년, 연구자, 유관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직접 발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열어두어, 세종시가 지역학 네트워크의 허브(Hub)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한다.

표 10. 전국 지역학 연구기관 현황

번호	지역	구분	기관명
1	서울 인천 경기	대학	서울시립대 서울학연구소
2			인천대 인천학연구원
3		지자체	경기문화재단 경기학연구센터
4			평택문화원 평택학연구소
5			고양문화원 고양학연구소
6			수원시정연구원 수원학연구센터
7			용인문화원 용인학연구소
8		민간단체	안산학연구원
9			인천학회
10	영남권	대학	경북대 영남문화연구원
11			경상대 경남문화연구원
12			부산대 한국민족문화연구소 인문한국(HK)연구단
13			신라대 부산학센터
14		지자체	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학연구소
15			부산연구원 부산학연구센터
16			울산발전연구원 울산학연구센터
17			한국국학진흥원
18		민간단체	대구경북학회

번호	지역	구분	기관명
19	호남권	대학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
20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남도문화연구소
21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22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23		지자체	전북연구원 전북학연구센터
24			전주역사박물관 전주문화연구회
25			한국학호남진흥원
26	충청권	대학	공주대 공주학연구원
27			충북대 중원문화연구소
28			순천향대 아산학연구소
29			청주대 청주학연구원
30		지자체	충남역사문화연구원
31			충북연구원 충북학연구소
32			논산문화원
33		민간단체	대전학연구회
34	강원·제주	대학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소
35		지자체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36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
37		민간단체	제주학회

출처 :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2020년

표 11. 국내 지역학 연구 거점 및 허브(Hub) 역할 추진 과제(안)

사업명	내용
세종지역학 연구자 육성 및 교류사업	**초광역 지역학 연계 포럼 개최:** 전국 단위 연계, 충청권 선도, 특화된 타 지역 간 융합 등 세 가지 층위로 다층적이고 체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식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세종시를 국내 지역학 네트워크의 핵심 허브(Hub)로 조성
	세종지역학 연구자촌(村) 조성: 장·단기적으로 국내외 지역학 연구자들이 세종에 머물며 연구에 전념하고, 상호 교류 및 협업할 수 있는 연구 공간을 조성
	세종지역학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 세종지역학 분야의 신진 연구자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인재 양성에 기여, 기존 연구자 간의 네트워크 강화 이벤트 개최 등
정책 연계형 지역학 연구 특화를 위한 거점사업	**한국 지역학 대제전 운영:** 후발 지역학연구소 및 유관기관을 하나로 잇기 위해 5년 주기로 개최되는 대규모 집중 행사로, 과거의 역사와 만들어지는 현재의 역사를 포괄적으로 기록하여 지역학을 국가적 핵심 공공 의제로 격상
	지역 정책 데이터 허브 구축의 가교역할: 각 지역의 경제·인구·사회·문화 등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분석할 수 있는 '세종지역학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앙정부 부처가 집적되어 있는 세종에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교 역할

■ 추진과제 2. 한국 지역학 대제전 운영

한국 지역학 대제전은 단순한 기관 간의 협력 행사를 넘어, 지역학을 지역사회와 국가의 핵심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특히 201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생겨난 후발 지역연구소 및 유관기관들을 하나로 잇는 정책적 대안으로서, 세종시가 주도하여 이러한 '한국 지역학 대제전'을 개최하고 이끄는 전략은 센터의 대내외적 위상 강화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본 대회는 5년 주기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1, 2년 내에 첫 행사를 시범적으로 개최하여 운영의 기틀을 다진다. 이를 바탕으로 세종시 출범 20주년을 맞이하는 2032년에는 전국적인 규모로 대대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준비한다. 대회의 주제는 '오래된 역사'와 '만들어지는 현재의 역사'를 동시에 아우르고 기록하는 방향으로 기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한국고고학대회' 등의 성공적인 학술대회 사례를 참고하

여 시민, 청년, 연구자, 기관을 하나로 연결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직접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부여한다.



그림 47.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포스터

- **대회명** : 제1회 지역학 대회 – 도시탄생의 기억과 지속
- **장소** : 세종시
- **참여기관** : 전국 42개 연구소 및 네트워크 기관 30여개소
- **프로그램** : 기조강연, 각 지역별 지역학연구소 주요 프로젝트 공유, 시민 발표 공모전 전시 등
- **연계 프로그램** : 국외 지역학 패널 참여, 지역 기반 영화 상영 등

그림 48. 지역학 대회 운영 예시(안)

③ 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

기존 세종지역학센터의 LAB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세미나 및 포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구총서를 세미나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별도의 주제를 선정하여 진행해 왔다. 그러나 그 범위나 참여 대상, 운영의 형태적인 면에서 학술성과 대중성이 다소 혼재되어 있어 프로그램 고유의 정

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었다.

세종학의 대중성과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학술성과 대중성을 분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에 전문적인 학술 포럼과 세미나는 기존처럼 '세종지역학 LAB'에서 전담하되, 기존 세미나에서 진행했던 북 콘서트와 같이 대중적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은 '세종지역학 PLATFORM'으로 확장 이전하여 공감콘서트와 같은 신규 프로그램으로 재구성하고자 한다.

표 12. 타 기관 콘서트형 시민 강좌 예시

기관명	행사명	내용
공주학연구원	공주학광장	학술성보다 대중성을 우선하여 강사 및 주제를 선정하고, 콘서트형에 가까운 행사를 운영
서울기록원	시민 기록 토크/ 기록 콘서트	시민 아키비스트 프로그램과 연계, 시민 기록 사례 발표
부산문화재단	15분 도시, 문화예술로 잇다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게 된 변화를 공유 (부산과 인연이 깊은 예술인들이 토론자(패널)로 참가)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명칭은 대중에게 친숙히 다가갈 수 있도록 '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 '세종학 잇기 콘서트', '세종지역학 소통콘서트 같이 가치', '세종톡살롱(살롱과 토크의 결합형)', '세종커넥트', '세종학 이야기 마당', '세종지역학 열린콘서트' 등의 후보군 중에서 선정하여 활용하도록 한다.

또한,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학술적인 지식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경직된 강의 방식을 탈피한다. 대신 강연자와 시민이 눈높이를 맞추는 토크콘서트 형식을 채택하고 라운드형 좌석 배치 등을 통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나아가, 공감콘서트의 개최 장소 역시 공공기관 강당이나 학술 회의실에서 벗어나, 세종시 내 유의미한 공간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장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활용한다. 세종시 내의 오래된 골목, 근현대

건축물, 생태 문화 정원 등 장소 자체가 지닌 스토리를 공감콘서트의 배경으로 삼아 단순한 실내 행사를 넘어 공간이 주는 영감을 시민들과 함께 나누고자 한다. 이러한 공간 발굴은 행사 자체를 세종의 고유한 문화콘텐츠로 각인시키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지역학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하는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이다.

표 13. 세종지역학 프로그램 주제(안)

분야	세부내용
1	**세종학총서 등 북콘서트 분야** : 세종학연구센터에서 간행한 총서 등을 소개해 집필 의도, 과정, 의미 등을 함께 나누며 세종지역학 연구의 필요성과 성과 등을 공감하는 자리로 기획
2	**세종지역학협의체 〈다모임〉과 함께 하는 커넥션 분야** : 〈다모임〉 9기관의 지역활동을 소개하고, 세종지역학 발전을 위한 연계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는 자리로 기획. 세종지역학협의체를 확장해 나갈 수 있음
3	**일상 속 세종의 문화·공간·사람 이야기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참여형 분야** : 전문 학술성에 무게를 두기보다는 준전문가, 일반 시민, 청년 및 학생 등 지역 주민과 시민 누구라도 흥미롭게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강사를 구성하여 세종지역 정체성과 일상성을 살린 시민 친화적 교육콘텐츠화

위 프로그램은 시민들에게 지역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 청년, 여성, 시니어 등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두루 고려하여 시민들이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구역이나 거주지가 아닌, 개인의 진로와 정체성을 탐구하고 의미 있는 삶을 영위하는 공간으로 재인식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도입 초기에는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유형이 혼재된 통합 프로그램의 형태로 유연하게 운영한다. 이후 지속적인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점진적인 고도화 과정을 거쳐, 장기적으로는 각 유형의 특성을 살린 전문적인 독립 프로그램으로 분리 및 확장해 나가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표 14. 분야 3의 세부 실천 방안

강사섭외 방향	• 지역에서 오랫동안 활동해 온 주민, 소상공인, 예술가, 혹은 지역문화 활동가 • 세종의 역사, 공간, 사람 이야기를 실제 체험과 삶의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는 사람 • 전문 강의가 아니라 '이야기꾼' 스타일, 친근하고 재치 있는 전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주제 제안	• '세종의 오래된 골목길, 그곳에 담긴 이야기' (지역 원로 주민 혹은 골목 상점 주인) • '우리 마을의 명소, 숨겨진 공간 탐험기' (지역 문화해설사 또는 시민 사진가) • '지역 장인과 함께하는 전통과 새로운 만들기' (지역 공예인, 장인) • '사람과 공간이 만나 이루는 세종의 오늘' (지역 청년 활동가나 커뮤니티 리더)
프로그램 운영 팁	• 짧고 흥미로운 이야기 중심으로, 시민이 직접 질문하거나 경험을 더할 수 있는 참여 시간 마련 • 강사 섭외 시 '카페 토크'나 '이야기방' 같은 편안한 분위기를 강조하여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도록 유도

④ 세종학 오픈 소스 프로젝트

'세종의 지성을 깨우다'라는 취지 아래,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하여 작성하고 참여할 수 있는 오픈 소스 기반의 『세종학 위키(Wiki)』 플랫폼을 개발한다. 이는 지역학을 기반으로 한 공공 지식 아카이브로서, 전문 연구자는 물론 일반 시민과 청년들이 함께 지식을 집필하고 검증하며 축적해 나가는 진정한 의미의 개방형 플랫폼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세종의 역사, 공간, 사람, 사건 등 다양한 지역 자원을 표준화된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이를 시민 참여형 사이트로 운영하는 구상이 필수적이다. 이 플랫폼은 향후 교육, 정책, 문화 등 다방면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아카이브 정보 사이트로 구축되며, 세종지역학센터가 이를 선도한다.

콘텐츠 생산에는 일정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시민 아키비스트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실무자, 관계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이 과정에서 세종지역학센터는 무리한 직접 집필보다는, 세부적인 집필 체계를 구성하고 교육 기획을 통해 참여 인력을 양성하는 등 전체적인 플랫폼 운영과 관리 역할에 집중한다.

플랫폼 내 지식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집필자–에디터–전문가 감수'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검증 단계를 갖추되, 최종적인 플랫폼의 총괄 관리는 세종지역학센터가 담당하는 구조를 확립한다. 구성되는 위키의 핵심 카테고리는 역사·공간·생활·문화·정책 · 도시 등의 분야로 세분화하여 기획할 수 있다.



그림 49. 조선왕조실록 AI 위키



그림 50. 세종특별자치시 – 나무위키

⑤ 글로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실질적인 사업 추진

지역학의 글로벌 네트워크 조성 및 국제적인 학술 교류는 향후 센터가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특히 국가 행정의 중심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을 십분 활용하여, 전 세계 지역학 연구자들 간의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굳건한 협력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세종시가 글로벌 교류의 핵심적인 구심점 역할을 주도해야 한다.

성공적인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세종시만의 독특한 지역정체성과 맞닿아 있는 전 세계 도시들을 발굴하여 테마별로 특화된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해외의 주요 '행정수도' 역할을 담당하는 지역들이나, 세종시의 사례처럼 '위대한 역사 인물의 이름'을 명칭으로 채택한 해외 도시들을 연계망으로 묶는다. 이러한 상호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 학술 세미나, 공동 연구 등 실질적인 교류사업을 기획하여 글로벌 지역학으로서의 입지를 다진다.

■ 추진과제 1. 세계 행정수도 및 행정복합도시 중심의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표 15. 세계 행정수도 및 행정복합도시 중심 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사업명	내용
교육 및 인재 양성 협력	**세계행정수도대학 학점교환사업:** 행정수도에 위치한 대학 내 도시, 지역문화, 지역개발 관련 학과를 중심으로 학점을 교환하여 미래도시 전문가로 양성
문화·역사 콘텐츠 공동개발	**세계행정수도지역 문화·역사 콘텐츠 공동 개발사업:** 각 행정수도가 걸어온 역사, 형성 과정, 정치·사회적 의미 등을 담은 공동 순회 전시회를 기획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국제적 유대감을 형성
정책 기반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 사업	**세계행정수도 지역 정책 기반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 사업:** 각 행정수도의 도시 발전 모델, 행정 효율성, 인구 유입/유출 문제, 주거 환경, 문화 정책 등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지역학 관점에서 분석 특정 정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다층적인 영향에 대한 공동 연구 수행 및 통계자료로 상호 공유 지속 가능한 도시를 위한 행정수도들의 역할과 과제를 지역학적 시각에서 탐구하는 도시개발 공동 연구
공공 행정 및 도시계획 전문성 교류사업	정책 입안자, 도시 계획가, 지역학 연구자 등의 교환 프로그램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역문화 소실 문제, 커뮤니티 형성 과정 등을 지역학적으로 접근 및 모색할 수 있는 워크숍 개최

표 16. 추진 과제 1분야에 대한 추진단계(안)

초기 기획 및 타당성 분석 → 전략적 파트너 선정 및 제안서 작성 → 정부 및 시 관계자 협의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 '글로벌 행정수도 포럼' 등 글로벌 네트워크 확장

■ 추진과제 2. 세계 인물명 도시 지역학 연합체제 구축 및 사업 연계·공동 개발

표 17. 세계 행정수도 및 인물명 도시 현황(예시)

구분	도시이름	설명
행정수도	푸트라자야(말레이시아)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신행정수도(이집트)	수도는 카이로
	브라질리아(브라질)	과거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륙으로 옮겨 건설한 계획도시
	캔버라(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사이의 중립 지역에 계획적으로 건설된 수도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과거 카라치 수도를 북쪽으로 옮겨 건설한 계획도시
인물명 도시	워싱턴 D.C. (Washington D.C., 미국)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는 초대 미국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의 이름을 따서 명명
	뉴욕 (New York, 미국)	원래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뉴암스테르담(New Amsterdam) 이었지만, 영국으로 넘어간 후 영국의 요크 공작(Duke of York), 즉 훗날의 제임스 2세의 이름을 따서 '뉴욕'이 됨
	알렉산드리아 (Alexandria, 이집트 외 다수)	세계 여러 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이름의 도시가 있는데, 가장 유명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고대 마케도니아의 왕인 알렉산더 대왕(Alexander the Great)이 건설하고 그의 이름을 붙인 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Saint Petersburg, 러시아)	러시아 제국의 황제인 표트르 대제(Peter the Great)가 그의 수호성인인 성 베드로(Saint Peter)의 이름을 빌려 명명
	시드니 (Sydney, 호주)	18세기 말 영국의 내무장관이었던 토머스 타운센드(Thomas Townshend), 시드니 자작(Viscount Sydney)의 이름을 따서 명명
	다윈 (Darwin, 호주)	찰스 다윈(Charles Darwin)이 탔던 비글호가 이 지역을 지나간 일이 있어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
	간디나가르 (Gandhinagar, 인도)	구자라트어로 '간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표 18. 추진 과제 2분야에 대한 추진단계(안)

초기 기획 및 타당성 분석 → 정책 입안 및 예산 확보(지역학 중심의 세종시 국제 협력 아젠다로 설정) → 네트워크 구축 및 접촉 → 파일럿 프로젝트 추진 및 성공사례 만들기 → 성과 확산 및 다자간 협력 확대와 국제 포럼 개최 등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세종지역학 Platform

● 지속 **세종학 협의체 '다모임'**
- 세종학의 성과를 지역 내 유관기관과 연결하는 첫 제도적 장치
- 세종지역학센터의 흐름 공유, 협의체 운영방안 등 논의
- 지역의 문화·교육·산업·청년·균형발전 영역과 접속하는 공동의 기반으로 확장
- 지역 안의 여러 기관을 가로로 잇는 협력망

● 지속 **세종학 운영위원회**
- 지역학 유관기관과 예술가, 활동가로 구성되어 운영·관리·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구조
- 세종학이 지역사회 안의 다양한 경험과 실천 감각을 함께 반영하려는 시도
- 세종학의 흐름을 안정적으로 점검하고 방향을 조율하는 세로축

● 지속 **유관기관 MOU 및 협력세미나**
- 세종학의 외연을 넓히고 실행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플랫폼 장치
- 2024.0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미래문화유산대학원 세종캠퍼스**
  국가유산과 문화유산 연구, 교육 협력의 기반을 마련
- 2024.12. **대구경북-세종 지역학 교류 협력 세미나**
  세종 내부의 정체성 정립을 넘어 다른 지역학과 비교·교류하는 단계
- 2025 **조치원문화정원 → 조치원문화정원을 통해 그리는 지역의 미래**
  지역의 생활문화 거점과 보다 밀착된 관계를 형성
- 2025 **PAL문화유산센터 → 오래된 것들을 오늘날의 놀거리로!**
  지역유산의 보존과 보호 등 실천적인 문화유산 활용 모색
- 2025.11. **세종점자도서관**
  누구나 세종학의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공공적 환원의 관점을 강화
- 2025.11. **세종RISE센터**
  지역정체성과 인재양성, 평생교육의 흐름을 세종학과 연결하려는 시도

그림 51. 세종지역학 Platform의 중장기 계획

세종지역학센터의 연결고리
세종지역학 Platform

- **신규 지역학 연구의 거점 및 허브(Hub) 역할**
  - **초광역 지역학 연계 포럼**
    기존 '세종학 포럼'에서 분화한 형태
    한국지역학포럼 등 기존 지역학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한 협력 기반 확대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연계 포럼을 통해 신수도권 및 균형발전 담론 선도
    제주·대구경북 등 타 지역학 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간 역사·문화 자원의 연결 가능성 모색
  - **한국 지역학 대제전 운영**
    지역학을 핵심 공공 의제로 끌어올리기 위한 전략적 선택
    후발 지역연구소 및 유관기관들을 하나로 잇는 정책적 대안

- **신규 세종지역학 공감 콘서트**
  - 기존 '세종학 세미나'에서 북 콘서트와 같이 접근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확장 이전한 형태
  - 토크콘서트 형식, 라운드형 좌석배치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분위기
  - 시민들에게 지역학에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기회 제공
  - 지역의 유의미한 장소를 발굴해 세미나 공간으로 재조명하는 궁리정담의 역할

- **신규 세종학 오픈 소스 프로젝트**
  - 『세종학 위키(Wiki)』 플랫폼 개발

- **신규 글로벌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사업 추진**
  - 세계 행정수도 및 행정복합도시 중심 교류, 공동사업 추진
    세계 행정수도대학 학점교환사업, 문화·역사 콘텐츠 공동 개발사업 등
  - 세계 인물명 도시 지역학 연합체제 구축

그림 52. 세종지역학 Platform의 중장기 계획

3. 세종지역학센터 조직 및 운영계획

1) 센터의 현재와 시사점

세종지역학센터와 비슷한 운영조직 사례를 통해 적절한 운영조직 구성이 필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현재 세종지역학센터의 관리 및 운영조직은 센터장 1인과 이를 보조하는 연구인력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센터가 구상하는 다각적이고 본격적인 지역학 진흥 사업들을 온전히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성공적인 중장기 계획의 실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불균형적 조직체계를 타개하고, 실무 실행력을 강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안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센터를 관할하는 상위 조직의 전면적인 변화 여건을 검토하여 중장기 계획의 추진에 필수적인 동력(전문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대 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세종지역학센터는 기존 '대전세종연구원' 소속의 연구센터에서 조직을 개편하여 '세종연구원' 부설 연구센터로 운영되고 있다. 변화하는 조직체계 안에서 지역학 연구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대비와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세종연구원 홈페이지 '세종지역학센터 소개'

세종시는 지역학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현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세종연구원 내 세종지역학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종지역학센터는 세종지역학 LAB(포럼, 계절 세미나, 총서), 세종지역학 CONTENTS(세종인물과 관련한 영상 제작, 찾아가는 청소년 지역학), 세종지역학 PLATFORM(협의체, 운영위원회, 뉴스레터, 업무협약)등의 사업을 활발히 진행함으로써 시민들과 소통합니다.

구성원

직급	담당분야	연락처
이재민 센터장	- 세종지역학센터 업무 총괄	044-550-3531
공동연구원	- 도시재생과 지역학	044-550-3541
위촉연구원	- 세종지역학센터 실무	044-550-3535

출처 : 세종연구원 홈페이지

그림 53.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구성원

표 19. 현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조직 구성원 현황

부설기관명칭	기능	구성원
세종도시안전연구센터	과학적 근거와 데이터 기반의 분석을 토대로, 세종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조직	센터장 외 3인
세종시탄소중립지원센터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녹색성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과 에너지 전환 촉진 등을 통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지원	센터장 외 3인
세종지역학센터	지역학 연구활동을 통해 지역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구현	**센터장 외 2인**
세종시국가균형발전센터	국가균형발전 선도도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성장하도록 협력하고 미래전략수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 조사 및 현안 대응을 지원	센터장 외 1인

※ 2025년 12월 현재 세종연구원 홈페이지 참고

2) 타 지역 인력구성 및 운영 사례

표 20. 타 지역학 연구소 및 센터 운영 인력 사례

기관명	소속	운영인력 (총)	센터장 (명)	연구원 (명)
수원학연구센터	수원시정연구원	5	1	4
강원학연구센터	강원역사문화연구원	5	1	4
공주학연구원	공주대학교	5	1	4

운영위원

위원	소속 및 직위	임기
당연직 위원	강원학연구센터 센터장	-
당연직 위원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국 국장	-
위촉직 위원	강원대학교 문화인류학과 교수	2024. 04. 08 ~ 2026. 04. 07
위촉직 위원	강원대학교 사학과 교수	2024. 04. 08 ~ 2026. 04. 07
위촉직 위원	강릉원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2024. 04. 08 ~ 2026. 04. 07
위촉직 위원	前 국립춘천박물관장	2024. 04. 08 ~ 2026. 04. 07
위촉직 위원	강원대학교 국학연구소장	2024. 04. 08 ~ 2026. 04. 07
위촉직 위원	강원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2024. 04. 08 ~ 2026. 04. 07

그림 54. 강원학연구센터 위촉직 전문위원 별도 구성

국내 주요 타 지역학 연구소 및 센터의 관리 · 운영 조직 현황을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센터장을 포함하여 최소 4인 이상의 전문인력이 상주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반면, 현 세종지역학센터는 기획 및 연구를 주도할 책임연구원급의 중견 인력이 전무한 실정이다. 현재 턱없이 부족한 최소 인력으로 운영되는 탓에, 센터장 1인이 연구 총괄은 물론 다방면의 실무 역할까지 무리하게 병행하고 있어 사실상 계획된 단위 사업들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명백한 한계에 직면해 있다.

3) 인력 운영의 제안

세종연구원의 전면적인 조직개편을 고려하고, 센터가 수립한 중장기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적한 업무를 조직적으로 분장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이다. 이를 위해 센터 내 조직을 크게 '기획부'와 '교육부'로 이원화하여 연구 및 사업 기획과 대시민 교육 운영이 각각의 고유 목적에 맞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체 조직을 총괄할 센터장 1인을 필두로, 각 부서의 실무 총괄 및 중장기 기획을 담당할 책임연구원 1인, 세부 단위 사업을 주도할 선임연구원 1인, 그리고 실질적인 연구 및 행정을 지원할 보조연구원 2인으로 구성된 핵심 진용이 갖춰져야 한다. 이에 더해 유동적인 프로젝트 및 행정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타 보조 인력(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등)을 탄력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예산적 뒷받침이 동반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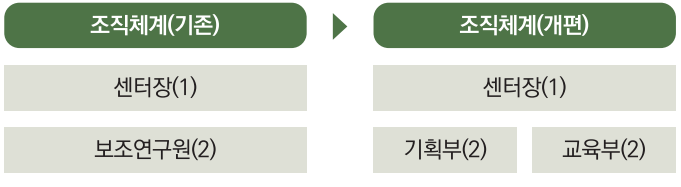


그림 55. 조직운영 개편(안)

표 21. 수행 업무(예시)

구분	담당업무	구성인원
센터장	세종지역학 업무 총괄 대외 교류 협력, 교육 기획 총괄 등	1
기획부	세종지역학 연구 기획 업무 세종지역학 중장기 계획 추진	1(책임연구원)
	자체 연구 및 수탁과제 공모 교육 기획 업무, 센터 운영 회계, 서무	1(책임연구원)
교육부	세종지역학 교육홍보, 지식총서 발간 운영위원회, MOU 기관단체 협력사업 발굴	1(보조연구원)
	소식지 발간, 시민강좌 운영 등	1(보조연구원)

4. 세종지역학센터 사업 추진 로드맵

<table>
<tr><th>시기
분야-과제</th><th colspan="5">중기</th></tr>
<tr><th></th><th>1년차
(2026년)</th><th>2년차
(2027년)</th><th>3년차
(2028년)</th><th>4년차
(2029년)</th><th>5년차
(2030년)</th></tr>
<tr><td rowspan="2">LAB</td><td colspan="5">전문가 포럼, 세종학 학술 세미나, 지식경영 총서 작업 지속</td></tr>
<tr><td></td><td colspan="2">학술지『세종학』발간</td><td></td><td>등재후보
학술지 진입</td></tr>
<tr><td rowspan="2">Contents</td><td colspan="5">소식지(세종네컷) 발간, 시민 아키비스트 양성 교육 및 시민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td></tr>
<tr><td></td><td></td><td colspan="3">세종시민의 날(세종학주간) 운영
세종학 투어 운영</td></tr>
<tr><td rowspan="6">Platform</td><td colspan="5">세종학 운영위원회, 유관기관 MOU 및 협력 세미나 지속</td></tr>
<tr><td></td><td>지역학대제전
개최(1회)</td><td></td><td></td><td></td></tr>
<tr><td></td><td>세종학Wiki
개발추진계획
수립</td><td>세종학Wiki
집필진 구성</td><td></td><td>세종학Wiki
자료구축&
집필시작</td></tr>
<tr><td></td><td>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td><td></td><td>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td><td></td></tr>
<tr><td></td><td></td><td></td><td></td><td>초광역지역학
연계포럼</td></tr>
<tr><td colspan="3">세계 행정수도 대학 학점교환 사업</td><td colspan="2">세계 행정수도 지역문화 역사콘텐츠 공동개발 사업</td></tr>
</table>

장기				
6년차 (2031년)	7년차 (2032년)	8년차 (2033년)	9년차 (2034년)	10년차 (2035년)
		등재학술지 승격		
	세종시 출범 20주년 기념 지역학대제전 개최 (2회)			
	세종학Wiki 1차 공개			
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		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		세종지역학 공감콘서트
	초광역 지역학 연계포럼		초광역 지역학 연계포럼	
세계 행정수도 지역 정책 기반 공동 연구 및 데이터 공유 사업		공공 행정 및 도시 계획 전문성 교류사업		

참고문헌

논저 및 보고서

김정태. (2016).「세종시 마을, 도로 등 명칭 제정의 성과와 의미」.『지명학』24. 한국지명학회.

박병철. (2006).「行政中心複合都市 名稱 制定의 經過와 展望」.『지명학』12. 한국지명학회.

이재민 외. (2020).『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대전세종연구원.

이재민 외. (2021).『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 설정과 아젠다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전략연구 2021-03. 대전세종연구원.

웹페이지

강원학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www.gangwonstudies.re.kr/portal/index

공주학아카이브: https://kjha.co.kr/kjarcintro/main

국립공주대학교 - 공주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s://kjhak.kongju.ac.kr/sites/M01045/index.do

서울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si.re.kr/index.do

세종연구원 홈페이지: https://sri.re.kr/index.do?condition=dms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소식: https://www.sejong.go.kr/shrUrl/9lj211jo9b.do

수원시정연구원 홈페이지: https://www.suwon.re.kr/

제주학연구센터 홈페이지: http://jst.re.kr/main.do

한국고고학회 홈페이지: https://www.kras.or.kr/

나무위키 - 세종특별자치시: https://namu.wiki/w/세종특별자치시

오늘의AI위키 - 조선왕조실록: https://wiki.onul.works/w/조선왕조실록

신문기사

김중규, 「'세종인물여행' 책으로 나왔다」, 『세종의소리』, 2023.11.3.

김중규, 「세종 8개 역 이야기, 책으로 나온다」, 『세종의소리』, 2024.9.6.

김중규, 「세종지역학센터, '한글로 그리는 세종의 미래' 발간」, 『세종의소리』, 2026.1.14.

노연서, 「세종시, 청소년 인문학·지역이야기 프로그램 성료」, 『뉴스세상』, 2025.10.17.

진선희, 「제주학, 전시·특강·탐방으로 더 가깝게」, 『한라일보』, 2020.10.5.

나주신문, 「"영산강 뱃길, 마한의 역사와 생태를 만나다"…인문 아카데미 열린다」, 『나주신문』, 2025.9.10.

심예섭, 「이달의 지질·생태명소에 영월 청령포 선정」, 『강원도민일보』, 2025.4.2.

장아름, 「제48회 한국 고고학 전국대회 11월 1~2일 광주서 열려」, 『연합뉴스』, 2024.10.30.

미주

1) 이재민 외. (2021). 『대전·세종 상생을 위한 지역학 연구 방향 설정과 아젠다 발굴』. 대전세종연구원 전략연구 2021-03. 대전세종연구원. 97쪽.
2) 이재민 외. (2020). 『지역학으로서 '세종학' 정립을 위한 기초 연구』. 대전세종연구원 정책연구 2020-53. 대전세종연구원. 127쪽.
3) 이재민 외. (2021). 위의 보고서. 109~122쪽.
4) 김정태. (2016). 「세종시 마을, 도로 등 명칭 제정의 성과와 의미」. 『지명학』 24. 한국지명학회. 박병철. (2006). 「行政中心複合都市 名稱 制定의 經過와 展望」. 『지명학』 12. 한국지명학회.

세종지역학 연구총서 제1권(통권 4권)

세종을 짓는 지역학:
세종지역학센터 중장기 로드맵

발행인 권영걸(세종연구원)

편집인 이재민(세종연구원), 이혜원(세종연구원)

발행일 2026년 2월 28일

발행처 세종연구원 세종지역학센터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5층
전화: 044-550-3535 팩스: 044-555-3599
홈페이지: http://www.sri.re.kr

인 쇄 삼성디자인기획 TEL 042-221-3111

ISBN 979-11-24215-18-0 03300

세종을 짓는 지역학

: 세종지역학센터 중장기 로드맵

세종연구원 SEJONG RESEARCH INSTITUTE
세종지역학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연구실]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281 SM메디컬센터 5층
T. 044-550-3535 http://www.sri.re.kr

비매품/무료
03300
9 791124 215180
ISBN 979-11-24215-18-0